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무카이코오 (向井孝)
폭력론노트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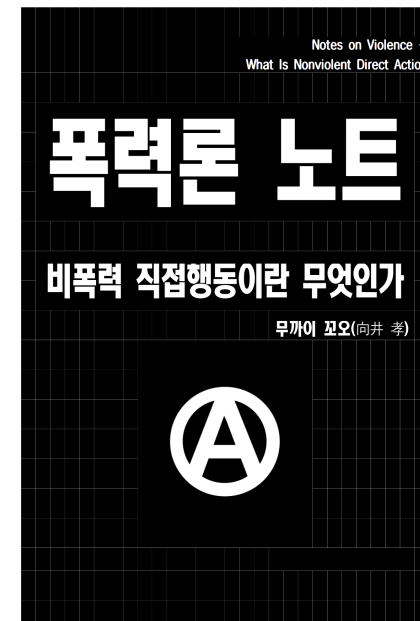
<http://blog.jinbo.net/attach/394/1149567404.pdf>
환경과反차별

kr.theanarchistlibrary.org

폭력론노트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무카이코오 (向井孝)



2002

차례

한국어판을내면서	4
2002 년의유언	5
I. 생명력	7
비폭력과아나키즘	7
생명력으로서의폭력과비폭력	8
II. 폭력이란무엇인가?	10
폭력의정의	10
폭력지배의의사비폭력 (擬似非暴力) 체제화	12
III. 간디의비폭력, 그의미	13
직접행동 — 비폭력의가시화 (可視化)	13
극한 (極限) 상황에서의문제	14
IV. 국가와전쟁	16
권력의본질로서의폭력과그가면	16
오직비전 (非戰) 밖에없다!	17
베이유의전쟁론	18
V. 비폭력이란무엇인가	20
비폭력과의사비폭력체제	20
비폭력의인민성	20
VI. 의사비폭력체제와민주주의	22
민주주의라는의사비폭력체제화	22
의사비폭력과외의싸움	23
VII. 게릴라, 인민성의문제	25
게릴라, 그의미와행방	25
사파티스타가시사하는것	27
‘폭력단’의의미	28
테러에대하여	29

평화학의창시자라불리는요한갈통은, 직접적폭력 (전쟁, 강간등), 구조적폭력 (빈곤, 환경파괴등), 문화적폭력 (군대, 사형제도등) 이라는개념을통해전쟁등의직접적폭력이없는상태를소극적평화, 사회구조적폭력까지없는상태를적극적평화라고이야기함으로써, 현사회에대해보다넓은인식구조와실천의방향성을제공해주었다.

이번소책자의무카이선생은현사회를‘의사비폭력체제’라고적극적으로인식하는것과그의사비폭력체제‘아래’에서의‘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삶 ☒ 실천의방향성을제공해주었다. 짧고쉬운글속에서, 그의미는더넓고깊은무게로다가왔다.

개인적으로환경이라는문제를통해세계를새롭게인식할수있었으며, 나아가평화는더한층폭넓은인식의지평을 열어주었다. 그리고이번의사비폭력체제와그체제아래에서의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개념은, 지금까지의인식을더욱명쾌하게, 새로운버전으로포맷할수있는인식과실천의계기가되었다.

최근, 이라크인간방패의소식을접하면서, 동시에아직까지도계속되고있는팔레스타인의인간탄알, 인간폭탄의심정도함께생각해본다. 직접적폭력, 사회구조적폭력이없는사회, 더나아가의사비폭력체제의극복이라는과제는우리모두의몫일것이다. 자발적개인과그에근거한동아리들의‘비폭력직접행동’이, 이체제에대한끊임없는저항과투쟁의방법론이라는것을공감하며, 이글의일독, 또일독을거듭권한다.

할을분담해서일을했다. 번역하는일, 활자체로옮기는일, 말투를고치고 다듬고……, 한데모여서토론하기를네차례쯤했나보다.

그리고무까이꼬오선생은「한국판출간에즈음해서」라는글을직접 써보내주었다. 우리나라로여든내살의할아버지가최근에부쩍건강이나 빠졌는데도글을써보낸것이다. 더구나한국판 15 권을돈을내고사겠다는말까지했다. 그는가난한분이다. 고마운일이다. 남들은나를아나키스트라고부른다는말속에서그의아나키스트로서의진면목을찾아볼수있다.

또하나, 「黒 La Nigredo」의간행동인무까이꼬오(向井孝), 미즈 따후우(水田ふう), 나까지마마사까즈(中島雅一)의약력을각각보내왔다.

미국의국가폭력이전쟁으로세계를지배하고있는 21 세기초에무까이꼬오의「폭력론노트」는세계인민의지침서가되고아울러이땅의보통 시민들의길라잡이가될것을바라면서……

— (ㅎ) —

번역된원고를타이핑하면서“와, 바로이거야”하고가슴으로느꼈던 그감정이아직도생생하다. 또, 그러하기에, 이작업은내내즐거움이있다. 친구들과역할을나누어함께일한이공동작업기간은내삶에특별한의미를가지는동시에“일상적인것”이되어버렸다.

미치광이부시와또, 앞으로도계속나올제 2 의부시에맞서는저항은, 즉각적인비폭력직접행동뿐만아니라눈에보이지않는저항으로서의우리의일상적삶이되어야한다고확신한다.

— 등대 2 —

그동안복권에투자하지않고모아두었던내행운들이드디어한꺼번에 빛을보게된것같다. 무척기쁘다. 널모레면책이되어나온다고생각하니 소풍전날밤처럼설레고불안하다. 그리고처음원고를받아서읽었을때부터함께일하고이렇게끝을맺게되기까지가무슨드라마인냥한장면한장면떠오른다. 특히, 노트에적어놓았던 (ㅎ) 의재미난말과상계동까지 “삼백리”길을이틀이멀다하고드나든고마움은쉬이잊히지않을것같다.

(ㅎ) 의표현으로는, “오늘죽었다고해도놀라지않을”만큼늙은무까이선생은승리를얘기하지않는다. “저도저도끝내지지않는다”고말한다. 진곳에서기어오르고기어오른인민의역사가지금우리가서있는지금이 자리인것이다.

비폭력직접행동은지금의이자리에서우리가우리자신을어떻게볼것인가의문제라고생각한다. 잃어버렸다는것도잊어버린, 자신에대한실패를되찾고우리에게힘이있다는것을새기면서단단하게사랑하고저항해야겠다(늘다집이군).

VIII.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31
생산노동·창조·유희	31
자치와관리	32
간디의소금행진	32

IX. 비폭력직접행동, 몇가지문제	36
소수파의노동운동	36
공동체등의의미	37
라르자크공동체의보배, 기타	39

X. 한사람의무리(群)로	42
생산점·생활점과시민노동자	42
시민노동자에서잡민(雜民)으로	43

부록 1. 지극히사적 ☒ 탈선적으로	46
입장과관계	46
약한자의폭력과비폭력	46
조직과그내부공격성	47
폭력의변질과전환	48
의사비폭력체제의현실	48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49
역사와비폭력행동, 여자들	50

부록 2. 테러를초월하는것	52
문제제기 1 — (오끼나와)	52
문제제기 2 — (테러)	53
절대상황과테러	54
비폭력직접행동이란	56

부록 3. 폭력론노트보충 [補遺]	60
---------------------------	-----------

해설을대신해서 - 내게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62
편집후기	72
「黒」간행동인(刊行同人) 소개	72
한국어판편집후기	73

한국어판을내면서

한국어판을내면서일본판에서빠뜨렸던것을한가지첨가하겠다.

그것은, 지금일본에서는완전히방치되어논의조차없는일이지만, 생각하건대이웃나라한국이나기타여러나라에서병역해당연령의젊은이들의절실한, 쉽게기피할수도없어구체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는병역문제가현실적인삶의문제라고하겠다.

*

그러니까벌써 2 년쯤전의일이었던듯한데나는한국청년봉어의얘기를들었던것이다. 봉어군은자기의징병검사를앞두고징병거부를선언하고싸우고있다고했다. 나는큰충격을받았다. 며칠동안멍하니, 아무일도손에잡지못한채, 사고정지상태에빠졌었다. 결코허풍을떠는게아니다. 그후부터나는어쩌다가‘한국’이라는말을들으면우선반사적으로생각하는것은‘징병제도’라는말이다.

*

봉어군의일이없었다면아마도나는‘일본의평화헌법’에도취해서징병이니병역이니군대니하는것을전혀생각하지않고살고있었을것이다. 대부분의일본사람이그런것처럼 (국가는이렇게모든일에서우리들을국민으로만들었다!).

나도사실베트남반전운동이들끓었을때 — 1960 년대 — 에는‘JATEC(탈주병원조조직)’에조금관계했었는데도망나온미국군인 [그중에는망명을요구한김동희 (金東希)? 라는이름을가진군인이있었다는것을기억한다] 을도와주거나했는데매년 12 월 1 일로정한 WRI 의 Prisoner’s Day 때는우리에게온세계각국의 CO(Conscience Objection, 양심적병역거부자) 명단에있는수감자수백명에게격려카드를차입해주기도했다 (이스라엘형무소에 50 여명이감혀있었다. 너무많아서지금도기억한다). 또휴일에외출한자위대원들에게반전빠라를살포하는일을한적도있었다.

그러다가베트남전쟁이끝나자어느덧뚝뚝어졌는데, 생각하니그게벌써 30 년이라는망각의세월이흘러갔으며이제는그러한공백조차자각하지않는일상생활에떠밀려오다가, 그게그러니까봉어군의얘기를듣고이제새삼스레깜짝놀라게되었으니내가불감증에걸렸던것이아닌지모르겠다.

*

하고활동해왔다. 반천황제 (反天皇制) 빠라, 스티카, 신문등이빌미가되어모두 5 차례의가택수사를받았다. 시집 『向井孝の詩』, 저서 『山鹿泰治 人とその生涯 — アナキズムとエスぺ란ト (야마가타이 지 人と그생애 — 아나키즘과에스페란토)』, 팜플렛 『ハウツービラ爆弾 (빠라폭탄제조법)』 그밖에다수. 사람들로부터아나키스트라는말을듣는다.

미즈따후우 (水田ふう)

1947 년돗토리현 (鳥取縣) 요나고시 (米子市) 에서출생. 고교졸업 후‘베트남에평화를! 국민운동 (ベ平連)’을벌이다. 69 년상경. 「안보거부 100 인위원회」 멤버로활동하고, 요코따기지 (横田基地) 반대운동으로연좌데모, 전단살포를 4 년간계속했다. 74 년오오사카로이주. 그후부터무카이코오 (向井孝) 와함께반전, 반원발 (反原発), 반천황제, 감옥문제, 사형제반대등주요여성그룹으로활동하면서 「WRI 뉴스」, 「비폭력활동 (非暴力活動)」, 「たんぼぼ新聞 (민들레신문, 감옥재소자에게보내는뉴스지)」 를발행했다. 저서 『エエジヤナイカ, 花のゲリラ戦記 (종잡아, 꽃구경하면서펼치는게릴라전이야기)』 (向井孝 水田ふう 共著). 『風』 발행.

나카지마마사카즈 (中島雅一)

1967 년토오쿄오에서출생. 1982 년부터반핵, 반천황제운동을시작하고그이후비당파행동그룹에참가했다. 「Anarchist independent Review(1 ~10 호)」 발행. 「黒, La Nigreco」 간행동인, 토오쿄오의 아나키스트, 아나코 〓 펑크스연합, Black Flag Collective 멤버, 편집자로 『となりて脱走兵がいた時代 — JATEC, ある市民運動の記録 (이웃에탈주병이있던시대 — JATEC(탈주병원조조직), 어느시민운동의기록)』 (思想の科學社) 등등.

1982 년에아나키즘을만난후부터, 아나키스트로서의생활태도와사상을, 일생을걸고실천하려고생각하면서살아왔다. 그러나실상을돌아보면그저부끄러울뿐이다.

한국어판편집후기

非戰, 『환경과反차별』 5 호에서예고한무카이코오 (向井孝) 선생의 『폭력론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를 『환경과反차별』 소책자시리즈 1 호로간행하게되었다. 7 년쯤전부터한글번역판을내려고무척애를썼지만, 뜻대로되지않다가 4 년전에전면적인개작을생각하고있다는무카이선생의말씀을듣고기다렸던것이다. 그게 2002 년 12 월 15 일책으로나오자마자나카지마마사카즈 (中島雅一) 씨는서울에오는인편에그책을직접보내왔다. 그리고우리편집동인 4 사람은각각역

편집후기

1999 년시애틀에서아나키스트들이스타벅스나나이키등의유리창을파괴했다. 이에대해서“물건을깨는것은폭력이다”, “물건쪼개는것은폭력이아니다”, “오히려상징적으로물건을깨는것은좋은일이다”하는논쟁이있었다. 이것은운동에서비폭력이표방되면언제나제기되는논쟁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현상적으로나타난것만으로‘비폭력’이다‘폭력’이다’하는따위의논쟁은전적으로무의미하다.

비폭력직접행동이란행동의양식만을말하는것이아니다.

사람들의자율적생활과인간의자유와존엄의박탈에대치하는생명력에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그야말로그것은비폭력과반드시일체를이루는것이다.

이책은『현대폭력론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自由連合社, 1970) 의개정판이다. 구판은신좌익운동이무장과군사적인경향을일층강화시키는시대상황에서간행되었지만, 이번에는“테러에도전쟁에도반대”라는슬로건의의미하는, 우리들의주장과는어디까지나거꾸로나가는‘비폭력’이만연하는시대에간행하게되었다.

작년가을이후우리들눈앞에제기된이상한풍경은이책을어디까지나현재진행형으로간행할것을요구했다.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체첸, 이라크…… 스스로가테러의원인인커다란정부와전쟁국가군이‘반테러’를내걸고사람들을죽음으로몰아넣고있는지금! 그리고사람들의자율적인생활■자치관리를가능하게하는조건을기반에서부터파괴하는국제금융자본과기업이전세계의사람들에게더더욱다가서고있는지금! 전쟁의이편에서, 풍요로운의사비폭력체제내에서, 자율적인생활을가능하게하는것과반대되는조건을갖추는데사회전체가스스로그들과한통속이되고있는지금! 우리들의삶은, 우리들의생명력은그들에게도대체무엇으로대치할수있는가?

그리고그런것들에대해서우리들나름의불완전한대답, 그것말고무엇이있겠는가! 이런우리들의불굴의각오와확신을가지고이팜플렛을간행한다.

나까지마마사카즈 (中島雅一)

「黒」 간행동인 (刊行同人) 소개

무카이코오 (向井孝)

1920 년토오쿄오출생. 1954 년 WRI — Japan 서기를자칭하고반전 (反戰), 반차별 (反差別), 반정치 (反政治), 비폭력직접행동을주장

각설하고이쯤해서단박에결론으로비약한다. ‘폭력론노트’를들출것도없이우리들의일상은항상‘의사비폭력체제하’에존재한다는것이다. 이경우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에도취되어지금은징병제가면제된다는것을전혀자각하지않고살아가고있는데 (한국에서는) 징병제도가마치당연한것처럼존재한다. 붕어군은이런상황에 (한국과일본) 돌맹이를던졌던것이다. 다시말하면그것이오히려특별하고이상한일이되고말았는데, 이것은일상에서비일상성을의미하는것이다. 그리고일본에서는평화헌법도취나징병제불감증이나모두똑같이의사비폭력체제하에서무의식, 무자각으로우리들의의식의토대를이루는사회적구조이다. 그것을밝히는게바로『폭력론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에서말하려는핵심이라고해도된다. 붕어군의행동은그래서의미가크다.

(부기)

근자에건강이좋지않은탓에짧은글인데도뜻을담아내지못했다.

2003. 2. 26

무카이코오 (向井孝)

2002 년의유언¹

- 간행의변 -

20 세기를‘전쟁과혁명의세기’라는이가있다. 그렇다면나는 1920 년에태어났으니까내생애는완전히 20 세기안에서살아온것에다가덤으로 21 세기를맞이하는격이다. 다시말해서거의전부, 일생이 20 세기로끝났다고해도괜찮을것같다.

그런데 9.11 이후에나온게‘테러에도전쟁에도반대’라는그럴듯한, 일단은누구든지반대할수없는슬로건이다.

이것때문에세계의양상은일변했다. 그때까지의사적비폭력자세를취하고있던여러국가는그들이가지는위압적이고압도적인군사력을드러내놓고반테러전쟁을정의라고하면서테러사냥이란명목으로복종을거부하는전세계인민에게선전을포고한것이다. 새로운 21 세기는진실로그러한미국의 1 국지배를선두로한‘반테러전쟁국가와인민과의싸움’의세기로시작되었다고해도좋다. 반테러전쟁을정의라는명목으로세계를지배하려는미국과, 이를추종하는국가들. 그러한입장에서서오늘의세계상황을재정립한다면반테러국가군에대한인민의비폭력직접행동

¹ 이책자에별지형식으로덧붙여진글임.

의음직임이바야흐로세계로확대되기시작했다고할수있다. 아니그보다
도이제비폭력직접행동밖에없다는것을차츰알아차릴수있게되었다.

다시한번말한다. 20 세기의‘전쟁과혁명’은 21 세기에는반테러전쟁
국가들과인민과의대치상황에서시작되었다. 오직비폭력만을말할수밖
에없는사람들이새삼스레내세우는것이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것을, 지
금처럼강력하고명확하게얘기해야할때는없었다. 이것이 『현대폭력론
노트』 개정판을간행하게된이유이다.

2002. 12. 13 무카이꼬오 (向井孝)

여기까지쓰고읽어보니까뭔가맥락도없이똑같은말을몇번씩되풀이
했다. 게다가내가생각하는비폭력직접행동이라지만, 무카이상이쓴것
이다. 함께살면서얘기로들은것을그냥되풀이할뿐이다. 내가제일좋아
하는등사관으로출판한 『폭력론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를오래간만에읽어보았지만용어도그대로, 완전히배긴것이다. 그렇지,
그렇구말구. 아직독자적인나의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쓸수없다. 그렇
지만옛날의나와지금의나는완전하다르다. 아까‘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을지지, 지원하고……’라고썼지만사실은조금다르다. 그들이체포됐을
때무카이상은금방지지, 지원하는내용의글을썼지만나는“구원하는것
은당연하지만그들을지지하지는못한다”고해서무카이상과울면서 1 주
일이나싸웠을정도였다. 그런일이있고나서나는무카이상의 『폭력론노
트』 를되풀이해서읽었다. 벌써 30 년가까이된일이다. 읽고‘눈을떴고
있던비늘’이여간해서떨어질것같지는않았다. 그렇지만개인의‘폭력’은
생명력의일부분이라는데를발견하고무엇인가나는크게해방된기분이
들었다. 그래서이제알았다는기분으로 (아마도조급하게결론짓고) 어
느사이에‘비폭력’에구애받지않는비폭력주의자가되었다. 그래서이론
이아니라 『폭력론노트』 가‘눈에비늘’이되어있었다는것을알게된것은
고작최근 1~2 년이다. 그러나지금전세계가‘전쟁의구름’으로뒤덮혀버
린’상황에한숨만나온다. 그렇지만우리들에게는‘비폭력직접행동’밖에
없고, 그것뿐이라고새삼강하게말하겠다.

*

결론이될지모르지만이것이나의결론이다. 내게‘비폭력직접행동’이
란, 지금그때그때의 ① 하지않으면안되는일을 ② 하고싶다는생각에서
③ 할수있을것같은것을 ④ 자기가좋아하는방법으로한다 — 는것. 그
러한당연하고평범한나날의삶이바로비폭력직접행동인것이다.

언젠가‘치매’를‘힘’으로하면‘그저치매’일뿐이다 — 라는말을들은적
이있는데, 나는그얘기를들으면서금방‘치매’를‘바보’로바꿔서‘그렇지,
그렇다’하고끄덕끄덕했다. 그런거라고생각한다.

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것은우리들의나날, 매일매일의무의식적인
삶을“폭(暴) 이아닌 (非) 힘(力)”즉, 생명력으로자기의‘힘’으로적극적
으로자각하는일이다. 그것을새삼깨달음으로써자신이변해간다면……
그렇게되면세상이조금변할지…… 도모른다.

9·11 이후미국에서는존레논의 「Imagine」이라는노래를내보내는것을자속했다고한다. ‘상상해봐요’라는가사가뛰어나고해서. 그렇지만 ‘국가없으면’이라는말, 지금상상할수있을까.

아니지. 상상할수있지. 예를들면한신아와지⁹ 대지진 (阪神神戸淡路大地震) 때행정 (行政) 의손길이미치기전까지모두가빠르게아무런말이없어도, 자주적으로활동을시작했다. 지금무엇이필요하고무엇을하지않으면안되는가. 그래서자기가할수있는것은자기가직접한다. 자신들이직접사람들에게호소한다. “직접적으로”— 이것이야말로‘비폭력직접행동’이다. 행정이개입하면서그러한‘직접’은‘간접’이되었다. 행정같은것이없는편이훨씬빠르고쉽고확실하다는것을, 그순간그장소에있었던사람들은진실로느끼지않았을까.

‘비폭력직접행동’의근원적의미는, 자기들이필요한것을자기들 스스로가직접문화나사업이나놀이로창출하는상황과행위를말한다. 그것은면엿날부터사람들이일군나날의삶속에있다. 그언저리에서보통사람들이별다를게없이살아왔다. 그이외에는없는, 일상의삶자체가가지고있던‘힘’을자기의것이라고분명히자각했다는것. 지금은이것저것모두국가·기업에빠앗기고반대로국가·기업의덕분이라고하지만그것이야말로주객의전도인것이다. 그것을그야말로뒤집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비폭력직접행동은이를테면인간방패나연좌시위나형거스트라이크 (단식투쟁) 나드러눅기 [Die in] 등기타이러저러한행의행동의스타일이나이른바비폭력적인전술에만정된것이라고말하고싶지않다. 지배자의의사비폭력체제하에서송두리째뺏겨버린생명력을하나하나탈환할것! 국민의‘생 (生)’에서자기자신의개 (個) 의‘생 (生)’을되찾자는것이다! 바꿔말하면나날의삶속에서‘비폭력직접행동’을탈환하는것이다. 그러나그것이‘반국가’, ‘반자본주의’, ‘비폭력직접행동’이라해도구름잡는얘기니까, 적 (敵) 들은아프지도가렵지도않으니까, 그래서이세상이지금금방어떻게된다는게아니다. 우리를압도하는국가폭력과, 누군가말했듯이‘안락’하고또는‘정체불명의전체주의’하에서이것저것모두가어둠속에빠려들어갈것같다는것이다. 그렇지만우리들은삶을그만둘수는없다. 그만둘수없는이상그때그때자기가우연히부딪친문제에덤벼들어움켜잡고, 저항도하고, 패스도하고, 찌글어지고, 사랑도하고, 아이를낳고, 기르기도하고, 놀고, 전단한장만들기도하고등……할수밖에없지않은가.

*

⁹ 오오사카 · 코오베 · 아와지를일컬음.

I . 생명력

비폭력과아나키즘

인민의저항은반드시지배자의폭력적억압에부딪친다. 그래서지배권력에대한항쟁은결국폭력적대결로발전하게된다. 이러한논리의귀결은자위를위해서 — 독립을위해서 — 해방을위해서 — 혁명을위해서 — 폭동 · 봉기 · 게릴라 · 내란으로나타나는인민의대항폭력■군사무장을당연한것으로만든다.

그러나지금우리들이당면한 21 세기, 특히 9·11 이후의세계가명백하게보여준시대상황과질 (質) 은과거와명확하게다르다. ‘테러’에대해서압도적장비를구사해서반테러전쟁을일으키는큰정부와전쟁국가군 (戰爭國家群) 의출현과, 전쟁이라는재앙을만들어내는폭력기구로서의국가에어떻게대항하는가, 이모든문제를집약한것이우리들의전면에무겁게내걸어졌다. 따라서비전 (非戰) 을주장하고테러의의미를묻는것은, 국가권력에대응할때피아 (彼我) 의폭력, 그자체의본질에대하고찰을하지않을수없게한다.

먼저결론부터말하면, 그것은 1989 년이후동유럽국가나소비에트리시아가허망하게붕괴함으로써남겨놓은 20 세기의교훈 — 사회주의나민주주의를표방하면서, 더구나폭력이이끌어간국가나조직은그스스로공포그자체인권력으로변한다. 그러한폭력적강권은반드시반혁명을가져올수밖에없다 — 을역사로마음에새기면서새삼새로운우리들의투쟁 — 비폭력직접행동 — 을발견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아나키스트가비폭력을주장하는것은특별히새로운일은아니다. 그러나흔히일부의입장에그치고때로는경시되기도했다. 아직까지도아나키스트가폭탄의전설에둘러싸여져있는것은‘직접행동’을개인의생명그자체로구현하지않으면안되었던시대상황과도관련이있다. 그것은아나키즘안에있는비폭력직접행동의본질지향이오히려고립된개인을부추겨서대극적 (對極的) 폭력 — 폭력에대항하는정반대의폭력 — 즉반폭력 (反暴力) 을향해서돌진하게하는역설적전화라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그러한전화의의미를밝혀내지못하고또논리의맥락을스스로도않게됨으로써아나키즘은한때보통사람들과연대하지못하면서수십년의침체를먼치못했던것이다.

일본에서비폭력사상은‘무저항’, ‘불복종주의’라고번역되면서종교적신조(信條) 쯤으로받아들여져오랫동안그적극적의미가묻혀있었다. 그러나 WRI(War Resisters’International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가“비폭력직접행동이야말로인민고유의원리이고방법이다”라고표명했고, 영국의 100 인위원회가“비폭력직접행동을투쟁의기조로한다”고선언한바와같이, 1960 년대에들어와비폭력사상은각지역인민의투쟁에새로운시야를열어젖히면서마침내이나라에서도그적극적의미를논하게되었다.

이노트는최근조금씩안이하게논의되는비폭력과비폭력직접행동의내용에대한오해, 유행(流行)에대해서아나키즘의입장에서, 특히비폭력과직접행동을나눌수없는일체로결합시켜파악하고자한다. 이것은또우리들인민만이갖는힘으로서, 나아가저항의원리이자방법으로서비폭력직접행동에새로운관점을시사하는것이되어야만할것이다.

우리들은현재, 이미어떠한체제와기구를파괴해야하는지를충분히알고있다. 그러나무엇을그것에대체해야하는지를잘모른채, 여전히구태의연한투쟁방법을쫓아가고있다. 비폭력직접행동은과연권력의거대한폭력에대항하는결정적인것이될수있는가? 이에대한실증은아직까지도알수없는미래에존재한다고밖에할수없다. 그것은지금까지의투쟁의차원과질을그뿌리에서부터바꾸는것과같은 — 예를들면지금팔레스타인에서행동하는‘인간방패’와같이 — 힘든모색과시험을거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더나아가서새로운활동의질과형태를창조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이러한과정에서어떤때의패배, 어떤때의무력(無力) — 그렇다고인민의폭력적대항이항상유효하고승리했다는것은아니다! — 때문에또다시과거의폭력신앙으로회귀해서는결단코안될것이다. 최근더욱눈에띄게드러나고있는‘반(反) 테러전쟁’은실로그러한위기이다.

생명력으로서의폭력과비폭력

본래폭력도, 비폭력도모두개인의생명력, 힘이다. 이것을무엇보다도먼저, 명확하게말해두고싶다.

생물은태어난다는의식없이어버이로부터생을이어받아, 생명력을발휘해죽을때까지삶을계속하는힘을갖는다. 그리고생명력은폭력과비폭력이라는양극에걸쳐나타난다. 다시말해서, 유아(幼兒) 시에나타나는모친독점욕, 학급이나그룹보스의존재, 크고강한육체를향한동경이나단련, 자기를권위있는사람으로만들고싶은욕망, 권세욕……. 이런것들은욕망의전자(폭력적) 지향이고성실성이나근면, 우애, 그리고생산, 노동, 유희, 창작등으로나타나는일상성의상황이후자(비폭력) 이다.

는‘침략전쟁’은반대라면서‘혁명전쟁’은지지하던시대였다. 그리고이런전쟁의구분 [Variation] 은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 미국이도발하는전쟁은‘무한한정의’이고이에반대하는것은모두‘악의축’이라한다. ‘정당화할수있는권력’을바라는입장이이세상에존재하는한, 이러한구분은없어지지않을것이다. 9·11 이후지금처럼국가의악과자본주의의악이확실하게보이게된시대는없다고생각하는데, 안그런가? 70 년대의폭력혁명시대가바뀌고지금모두비폭력을떠들어대고있지만 21 세기가돼서도, 아니지, 지금이야말로반국가·반자본주의의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슬로건이우리들에게는제일걸맞는다. 그리고알기쉽다.

*

어! 뭔가자꾸만흥분하고있다. 나는처음에셈란씨에대해나의“비폭력직접행동은무엇인가”에대해서좀써보려고했던것이었다. 이런말이라면 8 세, 13 세말들은커녕아무도들어주지않을것같군…….

내가 8 살, 13 살때는형제들과싸우느라날이밝고해가저물었는데, 그럴때마다어머니는“아무리상대나쁘다고하지만너도손을대면너도똑같다”는꾸중을했고나는이말에다시화가나고이해도못했다. 내가비폭력주의가된것은간디도, 킹도무관하다. 싸움질할때마다어머니에게상대가폭력을휘둘렀다고해서폭력으로앙갚음하면너도똑같은거다라는말을듣고자랐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나의‘비폭력주의’는내안에있는‘폭력성’을사실은부당하게가둬두고부정한것뿐이었다. 그래서오히려완고하게편협하고답답한사람이되었다. 간디를제대로읽은적이없었지만역시비폭력이라고하면인격이높고, 깨끗하고, 옹고, 금욕적이고, 현미가주식이고등등……으로생각했었다. 그래서좋다하고 1 주일단식을한적이있었다. 바보처럼. 비폭력을정신수양처럼생각했던것이다. 그런것을해도나는아무것도변하지않았다. 조금도마음편하게되지않았다. 무엇보다도사랑과연애를금지당한날은난살아갈수없을것이고…….

‘비폭력’하면아무래도간디를말해야한다. 그러나비폭력도, 간디도오해를먼치못했다고생각한다. 전쟁전교과서에서권력에좋지않은사람이하하나하나지워졌는데도간디만은마지막까지남아있었던것같다. ‘비폭력’은‘무저항’으로번역되었기때문에권력으로서는조금도무섭지않았던것이다. 운동쪽에서도똑같이‘혁명’은폭력이고, ‘비폭력’같은것은문제도되지않았을뿐더러엄청나게경멸당했었다. 그러던운동이이제는‘비폭력’을말하면서‘반테러’를말하기시작했다면‘비폭력’을아직도오해하고있다는것이다.

*

게되었다) 그것은 전혀 질이 다른 적(敵)과 같은 것, 말하자면 ‘조직 폭력’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조직은 절대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지키려고 한다. 당이나 국가나 모두 그렇다. 베트남 사람들의 저항하는 폭력은 미국을 몰아낸 후에는 더욱 조직화되어 다시 사람을 억압하는 기구로서 국가로 이어졌던 것이다.

*

지금과는 전혀 다르지만, 옛날 고교생 때 나는 오다마꼬토(小田實)를 좋아했는데, 『難死の思想』을 읽고 잊지 못하는 구절이 있다. 전쟁 말기 오사카(大阪) 시가지에 대공습이 있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다. 대공습 날에 이미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결정됐는데 8월 15일의 겨우 며칠 전이다. 물론 살해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비전투원이었다. 전후 불탄 자리들 판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오다마꼬토씨는 “이제부터 결코, 더는, 국가라는 것을 신봉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써 있었다. 나도 그것을 읽고 나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선의 심한다. 더구나 몸을 바치거나 맡기거나 청원하거나 뭐가 기대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새겼던 것이다.

그리고 9월 11과 그 후, 나에게 점점 더 ‘국가’는 ‘인간’과 적대하는 관제라는 사실이 확실해 질 뿐이다. 국가에도 이러저러한 것이 있어서 사형제도를 없앤다거나, 망명을 인정하고, 난민을 받아들이고, 탈주군인을 숨겨 주고, 복지가 충실하다거나 그래서 더 좋은 국가를 지향해서 “모두들 투표하자!”는 소리가 빈번하다. 그렇지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국가라는 것은 반드시 우선 자기나라 사람에게 전사를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라를 지킨다지만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은, ‘오끼나와(沖縄)’ 전투⁸에서 너무나 뚜렷해졌던 게 아닌가. 그리고 곰곰히 생각하니 까치금은 벌써 전사다. 이웃 사람을 살펴 보지 않고서는 본심을 얘기할 수 없게끔 돼 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반국가’라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의견도 있다. “권력은 악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떠한 권력이면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것”, 이것이 ‘21세기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최근 석간(加藤典洋, 朝日新聞, 2002년 9월 9일)에서 읽었다. 나는 진짜로 화가 치밀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인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카하타(赤旗)』를 파는 동급생에게 이끌려서 폴라리스 잠수함 반대 집회에 나가서 소련의 핵은 좋은 것이지만 미국의 핵은 나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핵 폭탄은 어떤 나라가 투하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지 않는가. 소련의 핵 폭탄이면 죽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건 “아이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60년대 당시

우리들의 삶은 그것이 힘으로 존재하는 한, 아이가 어른이 되듯 자연스럽게 이 두 측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 간다. 이 점에서 이 두 가지 지향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력이나 격려, 지속적 추구를 위한 에너지로서, 결단, 용기, 인내력으로, 또한 신이나 자기 희생, 기쁨의 향수(享受)나 창조력의 발현에 모두 불가결한 것으로 있다.

폭력, 비폭력은 양자 모두 그러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힘의 발현이다. 그것이 육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때 스포츠나 각종 경기가 되고 옛날의 무사도나 기사도 정신이 되고 또는 아이들 싸움 등에 나타나는 더 본능적이고 단순명쾌한 분쟁 해결의 방법도 된다. 그리고 이때 육체적 폭력에 따른 승패는 때로 정의(正義)로서 자기 주장을 처리하는 방법이 해결 방법이기도 했다.

⁸ 제 2 차 대전 말기 일본은, 미국과 이곳에서의 전투로 시간을 벌었다. 천황을 살려 주면 손을 들겠다는 조건을 얻어 내기 위한 시간이었는데, 이로 인해 오끼나와 20만명, 일본 본토에서 100만명이 죽었다.

II. 폭력이란무엇인가?

폭력의정의

우리들은폭력을논할때아무래도감성적으로말하게된다. 그래서결국에는논리적모순과혼란에빠져버린다. 우선극히단순하게폭력에대해서정의해두겠다. 폭력이란, 첫째로, 물리적압력의행사이다. 일반적으로이러한요건만으로폭력이라고규정되고통용된다. 이것이폭력론을혼란에빠뜨리는애당초의이유라고하겠다.

둘째로, 가해의지의발동이다. 이를테면길모퉁이에서갑자기사람과부딪쳐서상대를다치게했다고하자. 그때가해원인이된물리적압력은고의성이없기때문에폭력이아니다. 가해의지가존재하지않는것이다 (경찰관이나군인개개인의적에대한가해는명령이있었기때문이지자기의지가아니다. 그렇다면그때의물리적압력의본질이란무엇인가?).

셋째는, 자기입장의강제나타자의존재를부정하는 — 대화의거부이다. 가령, 죽어가는환자의부탁으로실행하는안락사는, 가해의뜻을갖고있지만폭력일수는없다. 거기에상대방의뜻에반해서또는뜻의여하를무시한강제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가해의뜻이없는것을폭력이라할수있을까? 폭력이란소극적으로는자기방어, 적극적으로는자기주장이타자의존재까지규정하고최종적으로는타자의부정이나거부로나타나는것이다 (그러면경찰이나군인은명령, 즉자기의사가아닌폭력을행사하는장치에불과하다).

이상세가지요건을갖추었을때, 대소강약과관계없이, 그것은폭력이다. 세가지중에하나가빠져도그것이폭력적이라는말은들어도, 결코폭력이아니다. 둘째와셋째요건만으로는적어도물리력을띠지않는한폭력은아니며오히려비폭력적인것이라고밖에할수없다. 그리고물리적압력의행사, 가해의지의발동, 자기입장의강제또는타자의부정 — 대화의거부, 이세가지를완전히구비하는것은, 잘생각해보면, 오직개인폭력뿐이다.

폭력을논할때반드시라고할수있을만큼논의가혼란에빠지는것은왜일까. 그것은개인폭력과사회폭력의질적구분을명확하게하지않고단순히폭력이라는말로몽둥그리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폭력의결과는그행사(行使)와피행사(被行使)의구분을따지지않고모두개인에게수렴되

이러한시대가됐는데도 『미또고우몽 (水戸黃門)』⁵이나 『아바렝보우쇼군 (暴れん坊將軍)』⁶가인기가있는것은, 검객영화의마지막장면이반드시악당들을처치해주고절대로보복당할걱정이없다는것으로안도감을주니까그렇다. 나도옛날 『히사츠시오깅 (必殺仕置人)』⁷을 좋아해서재미있게보았다.

항상당하기만하고올며겨자먹기가될수밖에없을때, 대신보복해줄 사람이있으면뭐든박수치고환영한다. “그새끼죽어마땅하지, 오랜동안 나쁜짓만했으니까!”하고생각한다. 그러나이러한정의감은또“그런나쁜놈은사형당하는게마땅하지”가되기도한다. 생각해보면그렇게사람은 개인의‘폭력’과권력의‘폭력’을뒤섞어버리면서‘폭력’은안돼라고원칙적으로말하지만결코‘폭력’을부정하지않는다. 오히려마음속에서는모두 좋아하는게아닌가.

복싱이나레슬링, 유도, 검도…… (이것도일종의폭력이지만) 힘이 대체로같은데일정한룰로개인과개인이대등하게폭력을발휘할수있는 스포츠는매우인기있다. 사냥을스포츠라면서즐기는사람조차있다.

*

뭔가같은말을하는것같지만여기서내가하고싶은말은개인의폭력과 조직의폭력은전적으로질이다르고똑같이다루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것을우선확실히해두고싶다.

인간이응애하는소리를내고어머니의뱃속에서태어나는순간부터가르치지않아도젓을먹지않는가. 이것이생명력이라는것인데그것은죽을 때까지계속해서살려고하는‘힘’인것이다. 눈앞에장애물이나타나면손으로막는다. 자신을지키기위해서무심코손이나간다. 돌맹이를주어듣기도하고낫을잡기도한다. 이러한‘폭력’은생명력이라고해야한다. 그것은이를테면생산, 노동, 창작, 유희…… 와같은일상의보편적인삶, ‘비폭력’ — 폭력 — 폭 (暴) 이아닌 (非) 힘 (力) 과같은것이다. 그리고이러한‘폭력’은본래부터‘비폭력’과따로있는게아닌 — 비폭력직접행동이다.

그런데한쪽폭력은물리적강약에서금방결과가나오기때문에이기려면집단을만들거나어떻게든무력으로강한조직을만들게된다. 그러면서 개인의생명력은어느사이엔가변질되고그결과로조직이성립된다.

테러의문제도거기에있다. 처음에는개인의‘테러’였던것이일단조직의전술로쓰면서조직화하는방향으로나가게되면 (지금까지는대개그렇

⁵ 일본동북쪽미토 (水戸) 의, 도쿠가와막부를민민의편에서서옹호 〓 지원하는핵심측근가문을일컬음. 평민의옷을입고전국을유랑하면서불의를해결하는암행어사같은 역할을함.

⁶ 가령조선시대숙종이옷을바꿔입고암행한것처럼쇼군 (장군) 이옷을바꿔입고암행함.

⁷ 반드시이기는사형집행인.

9·11 이후테러리스트의형태는확변해버렸지만테러리스트라고하면나는안중근이나난바다이스케(難波大助), 나카하마테스(中浜哲)나와다규우타로오(和田久太郎)를생각한다. 그들은누구와도상의하지않고, 누구의명령도받지않고, 자기혼자의결의로, 그이외에길어없는극한상황에서자기의생명을걸고천황이나육군대장의생명을노렸다.

나는여간해서이런일을안하지만그래도그들의생각, 심정은잘안다. 테러는, 하고싶은맘이있더라도우선무기가있어야한다. 자금마련도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무엇보다도기회가오지않으면할수없다. 때를맞춰서우연이거듭되어야비로소할수있는것이니까그런것이충분하지않아서호지부지되고테러를실행하지못한(하지않는) 채역사에묻힌몇백몇천의난바다이스케가틀림없이더많이있을것이다. 그것은지금도마찬가지다. 자신이그러한형편에있지않다고해서자기의보신(保身)때문에‘반테러’를부르짖고싶지않다. 보신이나쁘다는것이아니다. 그것도당연한감정이지만그것을감추고그렇듯한‘운동’의슬로건으로깃발을흔드는것이마음에들지않는다. ‘운동’이라는것은대체로다수파를만들려고하니까그렇게들거것말을한다. 때문에데모는‘반테러’를말하지않으면아무말도할수없다. “두렵다”는슬로건을내걸면된다. ‘테러지’를말하는것도, “두렵다”고말하는것도모두똑같이사람의마음아닌가. 애당초부터한사람한사람의마음을한가지슬로건으로정리해버린다는것은도무지할수없는일이니까.

‘운동’이지금까지처럼개인의마음을짓밟는것이라면, 이제오히려한사람한사람고립(孤立)하는것이중요할지도모른다.

*

옛날『당했으면보복하라』는산야[山谷]에관한영화를보았다. “당했으면보복하라!”는극단적인말이지만철저하게당한사람은보복할기력도, 그런걸할수있다는상상력도, 용기도없어지게된다. 그래서“당했으면보복하라”가아닌가.

우리들은모두처음부터지고있다. 아주먼옛날부터줄곧당하기만한게아니냐. 약한놈이강한놈에게덤벼들어봤자기습공격이라도하지않는한보복하려다가도리크게당하는것(여러가지의미에서) 이정한이치다. 이것은빼어서무치도록잘알고있다. 예를들면어딘가요세바(寄世場)에서‘폭동’이일어나서경찰이나거간꾼을해치겠다고해도다음순간에배나되는보복이 기다리고있다.

고환원된다는중요한특질을깨닫지못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기동대라는조직적폭력장치의발동결과는다원한사람한사람의폭력의집적이다. 그리고그러한개인의육체와정신은개별적으로자기의폭력행사에서그어떤반응을받는다. 한편데모대가입는피해는한사람의항의자피살이거나다른참가자의두부열상, 또는시민의안저출혈이다. 그리고체포되어재판을받는것은반드시개인이고형벌을받는것도그개인이자. 폭력장치인집단적사회조직은폭력의결과로직접적타격을받지는않는다.

그렇다면지금우리들은생명력과폭력, 폭력과폭력적, 개인폭력과사회(조직) 폭력, 이런것들을흔히뒤섞어서다루고있는것이다. 그래서우선폭력의정의를엄격하게바라잡지않으면안된다.

오해를무릅쓰고단정하다면, 개인폭력은사회적으로거의문제가되지않는다. 그것은이를테면, 우리들이폭력범죄에마주치게되는것은아주드문일이고우연한재앙과같다. 그리고그러한폭력은명백히반사회적이기때문에고립되어지지자나동조자를얻을수없으며결국에는소외되어사회생활자로서의일상을지속하지못한다. 기껏해야개인폭력은, 결국에는자기파멸직전까지이르고마는일시적인현상밖에되지않는다. 또, 현실사회에서개인의자의적폭력이횡행하는것은지배자의권위를실추시키고나아가그존재기반을위태롭게하기때문에, 즉시경찰력이발동된다. 그렇게개인폭력은위법으로단속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폭력이일상적인화제가되고신변의문제로느껴지는것은왜일까. 그것은폭력의결과가모두개인에게수렴환원되기때문이다. 비록그것이한개인의피해나가해일지라도, 자신의생사에관한직접적인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개인폭력은사회적대응으로써결국극복된다는귀결에도불구하고흔히우리들이일상생활에서아직도폭력을두려워하는것은첫째로, 폭력에대한대항수단을우리들자신이행사할수없기때문에, 둘째로, 우리들이 스스로폭력에대항하는용기를완전히잃었기때문이다. 그것은우리들대신에국가가폭력을단속함으로써우리에게서일체의대항수단을금지하고한편에서우리들은가축처럼 겁이많고유순해져서태고때부터많은사람들이가지고있던, 들짐승에게맨손으로덤벼들던용기를이제갖지못한다는것이다.

좀더얘기한다면, 이미우리들앞에는“폭력은안된다”는일종의윤리감이통용되고있는것이다. 이때문에무조건폭력을옹호하는일은드물다. 그러나누구든“언제어느때나폭력은반드시악인가?”라는질문을받았을때그에대한공정은거의모두자신을잃는다. 폭력이필요하다고느끼는심정을비폭력주의자조차도말살할수없을것이다.

폭력지배의의사비폭력 (擬似非暴力) 체제화

폭력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극히 물리적인 것, 예를 들면 매스컴이 대서 특필하는 범죄에다 일상 생활에서 드물게 맞닥뜨리는 싸움질이나 금품갈취의 상해 등을 보태서 우선 생각하고 나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감각적인 공포로 그것을 상기한다 (테러도 그러한 의미에서 신변 가까이 느끼는 공포에 대한 상상력이다). 또 예를 들면, 가정 내 폭력, 유아학대 등 당사자에게도 대단히 심각하고 게다가 쉽지는 않은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의 본질은 인간 관계의 사회 병리적인 갈등 문제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폭력의 문제로 다루게 되면 도리어 쉽다. 상대한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 다섯 사람 끌어앉히고 응징하여 단순한 약자로 만들 수 있다.

개인 폭력의 범주는 쉽게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해도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존재하는 사회 폭력 = 권력의 폭력 장치의 내실 (內實) 을 구체적으로 찌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뿐인가 잘못하다가는 개인 폭력과 같은 차원에서 엉뚱하게 논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개인 폭력과 전혀 질이 다른, 개인 폭력의 시점에서는 간단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의사 비폭력 체제로서 존재하는 사회 폭력 장치에 대해서다.

사회 폭력은 우리들의 주변, 일상에서 폭력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질서 유지 장치로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사회 질서로서 일견 (一見) 우리들의 일상을 지키는, 폭력에 대한 압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찰 ㉠ 군대와 같은 국가의 폭력 장치는 일반 시민에게 합법인 것, 질서를 지키는 조직으로 비친다. 현대의 폭력의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회화한 사이 비비폭력 체제로서의 사회 폭력, 즉 의사 비폭력 체제를 문제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비폭력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에서 그야말로 인간 방패가 된다. 이스라엘 군인은 그들이 그곳에 있기만 해도 함부로 총을 쏘지 못한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에 알리는 증언자로서 그들이 그곳에 입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초월해서 개인이 총도 없이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서 ‘인간 방패’가 된다. 이런 비폭력 직접 행동을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소수나마 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빛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도그들 자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은 황폐를 멈추게 할 희망을 그다지 갖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이 어쩔 수 없는 테러를 만들고 있다.

*

9㉠11 에서 부시가 전세계에 “너는 미국 편에 붙을 것이냐, 테러 편에 붙을 것이냐”라고 추궁할 때 나의 대답은 “테러 편에서겠다”였다. 그리고 “테러에도 전쟁에도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風」² 33 호에 썼다. 데모의 슬로건으로 “테러에도 전쟁에도 반대”가 나왔을 때 나는 ‘칼사냥’³이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현대의 ‘칼사냥’은 권력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칼을 자기가 스스로 갖다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왜 비폭력주의자가 ‘테러’를 지지하는지 굉장히 당혹하여 편지를 보낸 사람이 몇 인가 있었다. 또 “테러에 박수치는 것은 ‘비열함’이다”라는 말도 들었다. 비록 ‘비열함’이라 해도 그것은 자기의 감정이다. 어떤 감정에도 5 폰의 혼 (魂)⁴이 있다. 비열한 마음이라고 해서 숨기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무심코 나오는 실토이니까.

속사정 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속사정이 있어야 원칙이 있다. 나는 속사정이 없으면 원칙도 만들 수 없고 원칙이 없으면 속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테러 편에 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속사정이 고원칙이다.

그런데 나의 비폭력 직접 행동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지금부터도 테러에는 반대지만 때와 장소와 상황과 누구에게 보고하는 말인가에 따라 표현 방법은 달라진다. 그것은 자기가 약한 자이고 약자의 편에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9㉠11 때 미국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테러 편에 선다”고 말한 것을 취소할 생각은 없다. 베트남 반전을 위해 무기를 잡고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한 것도, 폭탄을 던진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 사람들을 지지·지원한 것도, 이번에 테러 편에 선다고 한 것도, 지금 현재 살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 편에 선다 (서고 싶다)는 것이 나의 제일의 입장이고, 속사정이고, 원칙이기 때문이다.

² 미즈타 후우의 개인지 (個人紙) 로, 무카이 코오 등도 글을 실는다.

³ 일본 전국 시대 때, 각 영주 간 전쟁에서 이긴 영수 측이 진 영수 측의 무기를 접수해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을 가리킴

⁴ “한치의 벌레도 5 폰의 혼이 있다”는 일본의 속담.

스라엘군이미제총으로저격하는것입니다. 이러한절망적인상황에서자기의생명과맞바꾸는자폭공격을하는사람이나와도이상하지않습니다.

우리들은지금미국의농장노동자조합에공개호소문을보냈습니다. 이제아무것도없을게없게된팔레스타인농민에게연대를부탁합니다. 그러나지금우리들은황폐를멈추게할희망을그다지갖지못한실정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이스라엘군의폭력은더욱더강화되고…… (2002. 8. 20.)

그리고, 또다른멤버는말한다.

자폭공격을‘분노와증오에불타는종교적광신자가하는것’이라고나는도저히말하지못하겠다. 나는보았던것이다. 살려달라는절규를무시당한채점점더심해지는인종근절의억압에의해절망으로떨어지는사람들을. 자폭공격은술한선택들중의하나로택한저항수단같은게아닌것이다. 어디든자존심을가진사람들은있다. 자기의존엄성을지키기위해서자폭공격에자진해서나서는사람이없는땅이그어디에있을까?(2002. 9. 25.)

메일로보내온이런사정을매일읽으면암담해진다. 우리들은이렇게우리를압도하는국가폭력이 지배하는세계에서살아가고있다. 이에대해서‘폭력적인반항심’이마음속에서우러나는것은, 사람으로오히려당한것이아닌가. 그러나폭력은물리적으로강한자가이긴다. 폭력으로대항하지못한다. 더당한다. 살해당한다. 둘하나던지면대포로보복당하기까. 그런상황에서사람은거의돌도던지지못하고충도가지지못하고“죽이겠다”는말을듣고도발에나간다. 그렇게하지않으면살아남지못한다. 발에나가계속농작물을거두는게그들의싸움이다. 그런일상의너무도당연한것을, 나는그들의비폭력직접행동이라부른다. ‘비폭력’이라는진지한신념을투쟁의장에서만실행하자는것과는좀다르다. 그것은내걸어진전쟁에이기위한싸움이아니다. 살아있는한지고또저도결코지지않는당연한우리들의일상 — 삶 — 으로서의비폭력직접행동인것이다.

일본에서 ISM 에참가한청년들의보고에서“폭력으로의비폭력직접행동입니다”라는표현을들었다. 나에게는그의미가쉽게와닿았다. ‘인간방패’의행동은팔레스타인사람들의비폭력직접행동으로서의일상 — 삶 — 을조금이나마유지시키기위해그곳에서함께생활하는비폭력직접행동인것이다. 영국이나아일랜드, 미국그리고이스라엘이나스위스, 이탈리아, 일본에서수백명이넘는사람이참가했다고한다. 대부분이젊은이들이지만그중에는아버지가스페인혁명에중군했다는 70 세의여성도있다는것이였다.

그들은방패가되어탱크앞에맨손으로섰다. 농민과함께밭에나갔다. 검문소에서구급차를통과시키라고군인에게말을건다. 자폭공격자라고지목되어가옥파괴의표적이된집에서가족들과함께잠을잔다. 방책이나도랑을넘어가는노인이나아이들곁에있으면서이스라엘군인들의총격

III. 간디의비폭력, 그의미

직접행동 — 비폭력의가시화 (可視化)

상대방이덤벼들어때리면반격의자세를취한다. 상대가사과하지 않으면되받아친다. 이것이상대의폭력에대한일반적이고아주흔한응수이다. 이러한행위는본능적으로누구든피하기어렵다. 그러니까폭력에대해서는폭력적대응이자연스러운자세이다. 여기에선도, 악도없다.

그런데대응행위는이것에국한되지않는다. 마하트마간디는폭력적식민지 지배에대한항의로서폭력에대해완전히반대의입장, 즉비폭력의입장에서“불복종”, “무저항”이라는대응행위를제창하고이것을실천했다. 그것은상대의폭력을방어하지도않고달아나지도않으므로강한신념과적극적의지를나타낸것이다. 무저항의저항이라고해야할간디의행위는, 그때까지눈에보이지않던것을가시화 (可視化) 함으로써비폭력에힘의의미를부여하는것이였다.

무저항에는직접상대에대응하는, 눈에보이는행위는없다. 있는것은폭력에대한폭력적대응을극복하려고하는자기에대한제지에서서비롯된갈등과, 그러한갈등에대한심리적인자기대응이다. 그것이보고있던증언자에게전해졌을때비로소가시화한다고말할수있다. 여기서폭력에대치하는것은눈에보이는물리적강제력이아니다. 그것과는다른힘이다. 정신적또는윤리적인, 눈에보이지않는힘이라고도할수있다. 비폭력이불복종이라는구체적행위를매개로해서나타남으로써“폭 (暴) 이아닌 (非)”힘 (力) 이가시화할때 — 그러한가시화도또새로운힘으로보태지는비폭력직접행동의출현을의미한다. 그래서가시화는, 의식화를가져온다.

20 세기초간디가활동을시작하기전비폭력의의미는폭력의부정, 혹은폭력행사가없는상황을말하고비폭력을바라는개인의신조, 윤리, 종교등이를테면정신주의의입장을보여주는것이였다. 그것을간디나그후의마틴루터킹등이구체적인직접행동의선두에섬으로써비폭력의의미가지닌소극성이바뀌게되였다. 폭력에대항하는힘으로서의비폭력의발견 — 무저항과불복종이라는직접행동의창조이다!

이렇게간디의제창에의해서비폭력은비로소사람들이의식하는힘으로서의미를갖게되였다. 하기는그때까지아니, 그이후까지도비폭력은

정신주의, 심정적이고 엄격한 윤리주의를 더 강하게 의미하면서 ‘직접 행동’이 반드시 비폭력과 일체화, 또는 절대적으로 따라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지점을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그보다도 무시하는 경우가 그대로 이어져서 운동의 확대를 일부러 한정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일부에서 남아 있는 비폭력의 실천은 보통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정신적 경지라는 오해의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물론, 이제는 비폭력의 전술로 연좌시위, 데모, 피켓팅 등이 상식적으로 금방 상상된다. 그러나 이를테면 무언(無言) 전화라든가 일찍이 수상이 손을 들어 버린 칭찬전술¹이라든가 스토크 등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행동도 비폭력이다.

확실히 비폭력의 일면은 윤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폭력도 또 하나의 힘이라는 점에서 본래 윤리적인 선악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이며 수단인 것이다. 그가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에 따라 폭력, 비폭력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힘이 지닌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다.

극한(極限) 상황에서의 문제

비폭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제기되는 반문이다. 만일에 연인이 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 목전에서 해버튼을 누르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서너는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등등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처럼 이미 제삼자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 초를 닮은 극한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절대 확실하고 유효한 대응 수단을 실천할 수 있을까. 폭력은 자기 능력이 상대를 능가할 때만 유효하고 자기가 상대보다 약할 때는 폭력도 똑같이 힘이 못 된다. 이럴 때 그 장소의 당사자만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승패는 거기서 중요하지 않다. 이에 대한 시비나 선악도 논외의 문제이다. 즉, 이때 제삼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상정하고 거취를 허둥대며 폭력이나 비폭력이나 하고 시비 선악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다.

도대체 이러한 문제 설정은 첫째 그러한 상황을 전후와의 관계에서 분리해서 제기함으로써, 둘째로 그런 일은 여간 해서 있을 수 없다는 희박한 경우를 일반적인 예로 했다는 데서 옳지 않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비폭력적 대응을 주장한다면, 여간 해서 없으며 또 있어서는 안 될 상황 때문에 미리 어떤 방법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정해져 있고 모든 수단이 강구된 상황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한

¹ 다케시타(竹下) 수상을 계속 칭찬함으로써 결국에는 바보로 만들어 버린 사건을 가리킴.

의 ‘공습’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읽었다) 쓰고 있다 (딸들은 이런 대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비폭력은 법률과 공습이 맞는군요”라는 말에는 “물론이지……”라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비폭력 직접 행동은 법률과 전혀 공습이 맞지 않는다.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차이로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비폭력이라 해도 셈란씨와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다.

국가의 본질은 ‘폭력’인데도 대의 정치, 법률, 재판, 감옥, 경찰, 군대, 그런 것을 합법화하는 투표……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인 제도, 폭력을 배경으로 하는 ‘비폭력’이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비폭력적 사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가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비폭력은 우리들의 비폭력과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환골탈태한 비폭력이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들의 생명력인 비폭력 직접 행동을 빼앗아 간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딸들이 내놓은 질문, “그래도 폭력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만약에 자기 눈앞에서 폭탄에 게애인이나 자기 아이가 습격 당하면 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돌이나 막대기를 들고 대항하지 않는가. 그게 생명력으로서의 폭력이다. 그런데 셈란씨의 대답은 개인의 폭력을 부정하면서 국가나 NATO의 공습을 부득이한 일이라며 ‘긍정’하고 있다.

나는 완전히 그 반대다. 개인은 ‘폭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아니다. 쓸 수 없는 것이다. 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 (또는 조직)라는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이나.

*

오늘도 팔레스타인에서 비폭력 직접 행동 ‘인간 방패’를 실행하고 있는 국제연대운동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ISM)의 참가자에게서 메일이 왔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에 방책, 벽, 도랑을 설치하고 팔레스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몰수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갈 수도, 장사를 하러 갈 수도 없게 된 이 곳 사람들은 이렇게 도저렇게 도할 수 없는, 황폐화된 경제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올리브 수확을 하면 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군인은 “저격하기 쉬우니까”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사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탱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수박을 팔던 소년은 탱크에 올라타 대포구멍을 수박으로 틀어막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

해설을대신해서 - 내게비폭력직 접행동이란무엇인가

미즈따후우 (水田ふう)

일반적으로‘비폭력’하면‘O’, ‘폭력’은‘X’라는이미지가떠오른다. 그렇지만나는좀다르다고생각한다. 인간이그렇게간단하게둘로나눠질까? 그러나그것이‘폭력’, ‘비폭력’이라는말로표현되면뭔가‘선’대‘악’같이된다.

‘폭력’도‘비폭력’도, 모두개인의마음속에서는하나로연결된것이고 어느쪽이나생명력이라고해야하지않을까? 어느쪽이나원초적으로인간이갖고있는힘이다. 생명력이다. 그것에는선이니악이니하는게관련이없다.

일상에서는무의식적으로‘비폭력’으로살아가는개인에게때때로튀어나오는생명력으로서의‘폭력’을, 나는오히려긍정한다. 권력이나세상이그것을테러라고해도완전히부정할수는없다고생각한다. 그것이어떤‘정의’, ‘대의’를명분으로한다해도모든국가와조직의‘폭력’, ‘비폭력’을나는단호하게부정한다. 하기는내가부정한다해도국가는꿈쩍도안하지만.

*

무까이상이가이팜플렛에신는원고를쓰기시작했을때 『딸아이와얘기하는비폭력이란무엇인가』¹라는책이나왔다. 나도곧읽어보았지만, 글씨역시다르다. 물론같은데도많지만…… 근본적으로다르다.

나는개인의폭력·비폭력과, 국가또는조직의폭력·비폭력은전혀질이다른것이라고생각한다. 알기쉽게말하면, 전쟁으로나타나는국가의폭력, 그리고대개사회질서나규율로나타나는국가의비폭력과개인의그것을이책은뒤섞어서말하고있다 (대개의사람도그렇다).

자기의 8 세와 13 세의딸에게얘기한것에이런데가있다. “그렇지만폭력이필요한때가있다고생각하지않아?”라는딸의말에서자셈란씨는내가잘못읽은건지모르지만, 독재자밀로세비치를치기위해서 NATO

전제에서그래도또예외의예외로, 즉시적대처밖에별방법이있을수있겠는가. 비폭력이만능의부적일수는없다.

그리고, 다음과같은 — 미국에서 1859 년존브라운이소수의동지와함께무장봉기했다가처형당했을때숲의철인이자비폭력주의자소로우가말한 — 말을소개하겠다.

“노예를살리기위해서힘을가지고노예소유자에게간섭할권리가인간에게있다”라고말한존브라운의가르침에나는찬성한다. 따라서노예해방을위해서브라운과같은방법을쓰는사람이나와도나는결코그의방법이틀렸다는말을하지않을것이다. 나는자유냐죽음이나의선택을요구하지않는박애주의자보다노예의입장을대변한캡틴브라운의박애주의편을들겠다.

¹ 『娘と話す‘非暴力’ってなに』 (책셈란, 現代企劃室).

IV. 국가와전쟁

오늘날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분류되고, 등록되고, 지배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표 딱지 없이, 국가의 영역 밖으로 한 발자욱도 나 갈 수 없고 국내에서도 갖가지 장애에 부딪힌다. 게다가 우리들 자신은 이러한 개념을 거의 선천적,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키고 있는 근거는 그러한 집단 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놀라 마땅한 일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인류의 구분 개념인 인종은 그러한 분류 근거로 생물학이 있다. 또, 민족이라는 개념은 문화 인류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국가를 근거로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 구성자인 국민의 내실성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완전히 지배자와의 관계에서 외재적 명칭으로 성립할 뿐이다.

국가가 국가일 수 있는 것은 우선 타국과의 관계 — 기타 국가로부터의 승인 — 에서다. 그 기본요건은,

- 1) 일정한 영토를 갖는다
- 2) 영토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타국력의 간섭을 불허한다
- 3) 그리고 지배하는 정치 권력이 존재한다

는데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단순히 하나의 정치 사회적 결합 형태에 불과하거나 또는 거대한 정치 단체일 뿐이다.

고대, 중세에서 국가라고 부르던 것에서부터 근대 법치 국가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항상 지배 계급의 권력 기구 그 자체로 존재했다. 국가의 주권을 장악한 권력자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서 우선 존재했다. 평상시, 국민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있다가 최후에는 지배자들은 자기들 보신을 위해서 국가 조차 팔아먹고 국민을 배신해서도 주해 버린 많은 역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권력의 본질로서의 폭력과 그가면

‘부르조아 국가의 지양’이라는 논리를 단순히 뒤집은 것에 불과한 ‘프롤레타리아 국가’라는 개념이 있었다. 국가의 지배 권력이 부르조아에서 프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로, 다시 말해서 폭력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로서도 메스틱 ☒ 바이올런스 (가정내 폭력) 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강자 약자의 관계가 아닌 폭력이 전의 문제 — 예를 들면 가부장제나 가족의 구성, 성장기의 환경이나 친구들의 영향 등, 근친애증의 굴절된 인간 관계가 우선 근거에 있어서 그것이 폭력으로 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에노씨가 말한 “남성성 (男性性) 의 핵에 있는 폭력 성 등과 같은 본질주의적인 말 대신에 남성 성도 또한 구성된 것이고 따라서 변경 가능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2002. 12. 13 무카이코오 (向井孝)

부록 3. 폭력론노트보충 [補遺]¹

일반적으로는‘비폭력행동’이라고하는데여기에서특별히‘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한것은무슨이유에서인가. ‘직접’을넣고안넣고에따라대체어디가어떻게다른지나에게묻는다면나는다음과같이대답한다.

아마도현시점에서이두가지내용은중중같거나또는거의같은것이다. 본질적으로나현상적으로도다른점은없다. 그런데굳이구분하려고하는것은전자가비폭력에대해서좀더자각적이고의식적이고신념적이라는데서‘운동적’이다. 간디주의라고나할까.

그렇다면후자는그러한‘비폭력’에대해서확고한신념이나자각의식이다소희박하다고하기보다, 오히려비폭력이일상행위의당연한연장으로 — 다시말해서생산노동의분배, 향수(享受), 생식(生殖, 노트에서는탈락되었지만여기넣는다), 창조나유희(놀이) 까지포함한일상생활을유지하는것에다름아니다. 따라서본래비폭력직접행동은일반적인일상의영위(살림살이) 와연결되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비운동적이고비주의적인것으로존재한다. 이것을인식하고자각하는데서『폭력론노트』에서말하는‘의사비폭력체제’의문제가시작된다는것을말해두겠다.

■ 우에노치즈코(上野千鶴子) 씨가‘여성국제전범법정’과관련해서“어떤행위를범죄화한다는것은무엇이범죄가아니라는것을동시에정의함으로써폭력의일부를범죄화하는것과동시에그밖의범죄를면책한다”고했다. 그리고“어떤폭력이어떤조건에서면책되는가”, “정의로운폭력은있는가, 없는가”자문하고“폭력에는좋은폭력도나쁜폭력도없다. 폭력은폭력이다”라고자답했다².

이러한의견에나는전적으로동의한다. 그것을전제로하면서여기서제기된도메스틱바이올런스(가정내폭력)로나타나는개인폭력에대해서간단히부연하겠다.

노트에서나는개인폭력의문제는폭력그자체로서대응한다면비교적용이하게대처할수있는것으로그이상언급하지않았다. 폭력은강약(強弱)으로결말이난다. 개인에한하면폭력의강도에한계가있다. 그러한물리력으로서의힘에대항하는방법은얼마든지있다. 예를들면압도적인원수의대항력으로상대를크게응징하는등이다.

레타리아로이행한다. 그것은노예제국가에서봉건국가로, 그리고다시자본주의국가로 옮겨가는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20 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행방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거기서는 권력의 최대 강화가 실현되었고 더구나 인민의 국가, 인민의 권력이라는 명분 아래 반역자를 가차 없이 처단했다. 실로 그것은 국가 체제로서 완벽함 침묵과 죽음의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 봉괴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국가에 조금이라도 맞서려고 할 때 금방 나타나는 것은 거대한 폭력 장치를 뒤에 둔 모든 권력적 규제이며 억압이다. 이것은 아무리 자유나 인권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외쳐도, 그것이 국가 일 때는, 그 어느 국가도 다르지 않다. 내면적 강제, 이른바 사회 질서로서의 심리적 ㉠ 정신적 지배 하에 더욱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의사 비폭력 체제를 성립시키면서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항상 권익을 주장하면서 권익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크고 작은 분쟁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배경으로 반드시 군대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비상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상시에 필요하다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분쟁’은 대(對) 러시아 북방 4 개 섬 쿠나시리 에 토로프, 대(對) 한국의 독도, 대(對) 중국 ㉠ 대만의 침략 열도이고 이른바 영유권이나 영해 문제이다. 그리고 대(對) 북조선 문제가 있다. 이것들은 오히려 타국과의 외교적 교섭 문제인데도 국내 여론을 부추겨 내서 널리 힘을 빚어 내면서 전쟁을 위한 군비 증강이라는 국내 정치 문제가 된다.

오직 비전 (非戰) 밖에 없다!

여기서 전쟁에 대해서 아무래도 언급해야겠다.

내일 생 동안 가장 간절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전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10 살에서 25 살까지, 이른바 15 년 전쟁¹, 특히 마지막 시기인 패전까지의 수년간은 일상성의 상실을 당연지사로 하는, 더할 수 없이 엉망진창에 다비 인간적인 나날이었다. 오직 파멸과 죽음만이 있는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생을 살았다.

전쟁은 절대로 안한다!! 이것은 지금 70 이 넘은 사람은 그 누구나 일생 잊을 수 없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결심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천황 가족이거나 그들과 멀든 가깝든 관련된 입장에 있는 자들 뿐이리라. 그러한 전쟁을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더니,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보신을 위해 휴전을 선언한 게 천황이었고 고국이었다. 전쟁, 천황제, 국가는 이때부터 언제 ㉠ 어느 때나 최대의 적이 되었다.

¹ 1930 년 ~ 45 년.

¹ 「2002 년의 유언 — 간행의 변」 과 함께 별지 형식으로 덧붙여진 글임.

² 『フェミニズムから見たヒロシマ (페미니즘으로 본 히로시마)』 (家族社, 2002 년 9 월).

그래서인지신헌법이발표되고제 9 조²가명시되었을때도나는이와무관하게나의신조로, 나의맹세로전쟁포기 — 비전 (非戰) 이라고 마음속에다집했던것이다. 이것을구체화한것이 1953 년 WRI(War Resisters'International) JAPAN 에가맹할때부터이다. 나는

WRI 에가입할때다음을서명했다.

- 1) 병역이나군무에일체종사하지않는다
- 2) 군수산업과그것과관련된곳에는취업하지않는다
- 3) 전쟁원인제거를위한활동을계속한다

전쟁을싫어하는것도, 피하는것도, 반대하는것도아니고오직비전 (非戰) 뿐이다. 그런데지금미국과그밖의나라가보유하고있는핵무기의 총량은지구전체인구를몇차례나살해할수있을까. 핵무기는언제든지투 하되며오직인민살해병기로서존재한다. 그뿐만아니라일본에는훗카이 도오에서큐우슈우까지³ 50 여기의원자력발전소가있다. 당연한애기지만전쟁이터지면미사일은원자력발전소를노린다. 미사일한발이 100 킬로미터사방을죽음의도시로만든다는것은체르노빌사고에서증명되었다. 이제이만한이유만으로우리들의입장은이러니저러니논의할것이없다. 단호하게비전 (非戰) 이다. 비전의입장이외에있을수없다.

베이유의전쟁론

시몬느베이유가 1933 년에쓴자그마한글 「전쟁에대한고찰」 을읽어주기바란다. 요약해서소개하면,

마르크스는현대의생산양식을노동수단에대한노동자의종속으로규정했다. 그리고또각자본가와그고용노동자에대한투쟁이결국은노동자 전체에대한자본가의투쟁으로변한다는것을논증했다. 이와마찬가지로 전쟁은결국전투원 (병사) 의전투수단 (장비) 에대한종속으로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현대전의진짜주인공인무기는결코스스로가직접전투를하지 않고전쟁에나가지않는일부사람들의조직 (권력) 에의해서관리된다. 이러한관리장치는자국의병사, ‘국민’을강제로죽음을의미하는전쟁터로내보내는것말고는전쟁의수단을갖지못한다. 그래서어떤나라의타국가에대한전쟁은곧자국군대에대한국가적군사장치의발동, 다시말해서 병사 (국민) 의군사장치에의종속을강요한다. 즉, 어떤전쟁도국가와참

“부정적매개”로하는데서우선항상같은스타일밖에없는운동방식, 투쟁 방식을바꾸는데서시작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⁸

² 일본의헌법조항으로군대를갖지않고, 전쟁을하지않는다는이른바평화헌법을말함.

³ 일본은 4 개의주요섬 (훗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우슈우) 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북쪽섬훗카이도와남쪽섬큐우슈우를지칭. 즉일본전국이라는의미.

⁸ 『反戦インターネット情報 (반전인터넷정보)』 (No. 6. 2000. 6. 1.) 에 『状況の中の非暴力直接行動 (상황에서의비폭력직접행동)』 으로실렸음.

게 ‘잇곳은 전화’를 하는 것과 같은 질을 넘어서서 비폭력 직접행동의 특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 — 전략까지 포함해서, 강자 (의사 비폭력 체제 또는 구조 폭력) 에 대한 약자 (인민) 의 비폭력 직접행동의 일상화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절대적 상황 인식’이라는 ‘비일상’을 면하지 못한다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에서 전문 전투 기술자 인무사단은 필요하지 않게 될 때 떠나간다. 이른바 ‘직업 혁명가’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곰곰히 생각했다. 그러나 비폭력 직접행동의 경우, 전문적인 소수자는 매우 자연스럽게 계다수 속으로 해소될 것이다. 그것이 비일상화이기도 하다).

좀더 솔직하게 말하면 비폭력 직접행동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일상으로 이미 존재하는 일반적인 삶, 생활인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1) 따라서 비폭력 직접행동은 싸움 이기는 하지만 결과로서 승패는 아니다. 승패에 구애되지도 않는다. 저도 또 저도 결코 지지 않는 데서 “살아 있는 것” 또는 저항 행위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산다’는 것을 의미화 (化) 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이다

2)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순간과 같은 ‘생애’로써 역사를 모두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에 매듭을 짓지 않은 채 과거에서 이어지는 지금, 즉 현대사를 우리들은 살고 있다. 그러한 무책임한 ‘적극성’이 비폭력 직접행동을 보편적이고 더욱 일상화하는 것이다.

3) 거기서 우리들은 우리들 (인민) 의 끝없는, 거의 느끼지도 못하는 ‘자유 연합성’에 의거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하기 쉬운 것, 그리고 마침내 앞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 등에 대처해서 ‘무책임’하게 무엇이든 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삶은 것은 하지 않고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 — 그것이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비폭력 직접행동인 것이다.

4) 물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모두 이것이라고 해도 좋다). 이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늘 동일한 식으로 지는 게 아니라 방법을 그때그때 바꿀 것, 다시 말해서 지는 방법을 바꿀 것, 체념하지 않고 바꾼 방법으로 계속 대처할 수밖에 없다. 잠이 들려고 할 때 귀찮은 파리나 모기 같은 것, 방법을 차례차례로 조금씩 바꾸는, 와글와글 떠드는 속에 비폭력 직접행동을 재미거리로 즐기는 것이다.

확실히 토야마씨의 말대로 현대사는 “그 앞에서 머물지 않는 상상력과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절대 상황에서도 ‘승패’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권력에 맞서는 사상이며 ‘테러’를 초월하는 방법과 사상을 제기하는 새로운 운동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것은 “순하고 겁 많은”, “예절 바른 데모, 집회, 게릴라” 등 기성의 투쟁을

모든 부의 모든 장치는 무기를 잡는 연령의 자기 국민에게 전쟁의 양상을 제공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는 노동자로부터 그들의 노동력만을 뺏고 자본가는 해고 이외의 강제 수단을 갖지 못하는 데 비해 군인은 강제로 생명을 바칠 것을 요구 받는다. 계다가 군법의 협박 하에 임무를 강제 당한다. 전쟁이 방위인가, 공격인가, 제국주의적인가, 민족적인가 등은 이미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당사국은 모두, 적국도 똑같이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전쟁론에 있어서,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빠져 있는 큰 잘못은 전쟁이 무엇보다도 가장 잔혹한 죽음을 강제하고 있는 국내 정치인데도 그것을 대화 정치의 하나의 에피소드로 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극히 단순한 것 — 살육은 억압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 — 으로, 군인은 살육으로 내몰려서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억압의 장치는 한번 구성되면 파괴될 때까지 존립을 계속하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비록 혁명가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해도) 반동의 요인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 장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아무에게도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혁명 전쟁은 혁명의 무덤이다. 따라서 군인이 라기보다 무장 시민에 대해서는 지휘 장치, 경찰의 강압, 특별 재판, 도망에 대한 형벌 등을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자의 (恣意) 를 인정한다는 조건에서 만전 수행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사에서 한번 파리로 문 때 이러한 전투가 있었다. 그게 어떤 결말을 가져왔는 가 잘 안다). 전쟁에 종사하는 혁명은 반혁명의 타격으로 무너지는 가 군사적 전투의 메카니즘 그 자체에 의해서 스스로가 반혁명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혁명의 전망은 극히 한정된다. 혁명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가 — 이러한 곤란한 경우에, 일체의 희망을 걸고 도전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이다.

때로 전쟁이 혁명적 요인인 듯 보일 경우, 확실히 전쟁의 결과로 조직의 나쁜 장치는 붕괴하거나 바뀐다. 그러나 그것은 마르크스의 정식이 말하는, 국가 장치를 파괴하는 대신에 뒤바꾸는 혁명이 일어나는 데 불과하다. 이것은 이제까지 늘 일어난 사실이다. 역사는 국가 권력 장치가 시민의 정치 행위에 더욱 억압을 가할 때 이 장치를 파괴하기 위해서 권력 장치를 직접상대해서 투쟁할지의 여부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행동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가 장치에 대해서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만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전쟁의 경우 자기도 톱니바퀴가 되어 있는 전쟁 장치의 기능을 방해하든가 또는 그 장치가 인간의 생명을 짓밟는 편에서든가, 어느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것은 또 비폭력 직접행동의 입장에서 펴는 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비폭력이란무엇인가

비폭력과 의사비폭력체제

우리들에게 비폭력이란 일상을 말한다. 일상이란,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기르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정말로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반복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비폭력적 질서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비로소 그 생활을 일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폭력이 일상을 뒤흔들고 나날의 생활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비폭력적 일상이 깨졌을 때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이외에는 의식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 등 폭력 하에서 위기의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은 하루살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성조차 박탈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폭력체제 하와 의사비폭력체제 하의 일상은 명백히 다르다. 우선 자신들의 목전에 있는 사회 상황의 의사비폭력체제 사회라고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거듭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일상 생활은 비폭력을 의식하지 않는 것과 표리(表裏) 가 되어 대개는 폭력이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서 실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 우연히 머리위를 포탄이 여기저기 날아다니지 않고, 단순히 개인 폭력이 횡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흡사 비폭력 상황으로 여겨야 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문이 써갈기는 범죄가 일어나도 강 건너 불구경이고 그것도 금방법적으로 단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그 일부분을 보인 국가의 폭력 기구는,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비폭력과는 질이 다른 의사비폭력의 상황이며, 그것은 의사비폭력의 체제 하에 우리 일상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폭력의 인민성

사회 생활에 나타나는 비폭력 상황은 그것이 인민의 자각이나 의식의 확립 같은 것을 통해 가스로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만큼 비폭력성이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인민의 속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리

이 기사에서 나는 ‘준비’나 ‘훈련’이 아니라는 말에 특히 주목했다. 그것은 그전에 10 년 정도에 걸쳐서 활동을 계속한 ‘그리남코몬의 여자들 캠프’의 역사를 이어받은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다음 ‘소(小) 해설문’을 보고 나서 납득했다.

「TP 2000 의 활동」

1998 년에 시작한 이 활동은 지금 체포된 사람만 해도 400 여명을 넘는다. 3 개월마다 비무장 캠프를 하고 이틀간 비폭력 워크샵에 참가한다.

우리들은 선서한 사람 리스트를 3 개월마다 정부에 보내고 계획, 동기, 조직 등의 정보를 군에 공표한다. 그리고 대화와 교섭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선서한 사람은 소 그룹에 들어가 자기가 맡은 핵폐절(核廢絶) 행동의 종류를 결정한다. 연좌도 하고 봉쇄도 하면서 군사 기지의 방책을 절단하고 원자력 잠수함에까지 해엄쳐 가서 장비를 파괴하는 등등 다양하게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행동은 특별히 용기가 있어야 하는 행동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핵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사전에 미리 행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비폭력 직접 행동’은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이런 것으로 끝나는가. 이러한 행동의 강조만으로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까……. 끝부분에서 ‘우리들의 행동은 특별히 용기가 있어야 하는 행동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굳이 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 특별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마뱀만 먹으면 동아리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캠프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행동 계획을 세워서 훈련함으로써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의 일상화’나 ‘캠프’는 비폭력 직접 행동의 중요한 운동과제이다. 그런 다음에 연령이나 체력과 기술 등의 조건을 생각해 선택된 소수자와 다수는 소수의 역할을 협력, 보조, 지원하는 등의 기타 부문을 담당한다. 그것이 중간적 관계라고 해도 서로 지지하는 한, 비폭력 직접 행동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즉, 그러한 관계에서는 호기심이나 순간의 기분 등까지 포함한 결의나 각오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모상’까지도, 쉽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댐 폭파’에서, 우선 다이나마이트의 입수, 사용 방법, 설치 시간, 댐의 경비, 댐의 급수, 하류에 대한 홍수 대책과 인적 피해 등에서부터, 작업 분담인가 단독 결행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조사, 준비, 훈련에 따라 이끌어 내지는 것(결의) 이어야 한다. 여기서 새삼 ‘폭력’의 의미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비폭력 직접 행동이 비로소 정치적, 사회적 방법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TP 2000에서는 선서한 사람의 명단 송부, 계획, 동기, 조직의 공개, 대화, 교섭의 기회를 만드는 등등 — (이렇게 ‘예고되는 것’은 지배 권력에

동은전적으로정당”하다는것을긍정하면서, 토야마씨의성급한결론이 결론은아니지않은가라고말해두고싶다.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메도루마, 토야마씨의글을읽으면서나는 30 년전에국회앞에서베트남반전을호소하면서분신자살한에스페란티스트⁷ 유이추우노신(由比忠之進) 씨를생각했다. 그때유이씨의주머니에있던미국대통령과일본수상에게보내는‘직서(直書)’와불에타서시커먼누더기가된와이셔츠와상의는지금어떻게되었을까. 나는그때유이씨의시커먼누더기가된와이셔츠를빌려다가히메지(姫路)에서추도모임을한적이있다. 그때“유이씨는다른사람을해치는대신자기를테러함으로써세상에, 우리들에게호소하려고했던것이다”라고말했었다.

예를들면나는훌륭하게완공된거대한댐의잔잔한수면이라든가물을 막은제방둑을타고뻗어있는굵은철관을보면이를갈고땅을치면서꺼져간반대파사람들을생각한다. 그리고댐의대폭파를한순간꿈에그린다. 그리고나서틀림없이몇사람인가나와같은생각을했을것이라고확신한다. ‘역사’의 100 년, 200 년은그것을위해있으며우리들은그러한역사의흐름속에서‘지금’을살고있다고되돌아본다.

이런것을생각하고있는데이자와코오지(井澤幸治) 씨가『페민(ふえみん, Femin)』 2000 년 4 월 5 일 (2,586 호) 를보내왔다. 비폭력직접행동의구체적예로이신문에실린「원자력잠수함트라이덴트관련시설 파괴 (비무기화) 행동」에관한평가와감상을쓰라는주문이다. 좀더자세하게기사내용을요약해서추려보면,

「원자력잠수함시설에직접행동」

울라, 엘렌, 앤지세사람은행동계획을세워발언을준비하고등반훈련을하고서고무보트로고이루호(ゴイル湖) 를건너갔다. 세사람이도착한시설은, 트라이덴트잠수함이음향과레이더그리고수중탐지기에걸리지않고항해하는방법을조사하기위한곳이었다.

창문으로들어가조사장치전부를호수에집어던져연구실을텅비게하고서배선이나스위치도모두절단했다. 이때의손실은당초수십만파운드로계산되었다.

그녀들은스코틀랜드의형무소에 4 개월간유치된후에 10 월 31 일 배심재판소에서무죄판결을받고석방되었다.

들은일상적으로특별한의도도없이질서있는사회생활을영위하고있다. 그것은본래의생명력 — 비폭력성에입각해서나타난속성적상황의역사적결과로서, 국가기구나법률, 제반제도때문이다. 단우리들이것을자각하는일이거의없고또아직드러나지않은 [未然的] 무의식하에서기능하고있다는것을깨닫지못할뿐이다.

그러니까인민의일상생활과사회의비폭력상황은한가지로나타나서나눌수없는관계로결부되어있다. 그러나그의식에서는폭력에대응하는것으로서비폭력이적극적으로파악되지않는다. 우연히일상생활을파괴하는적(敵) 인개인폭력만이현실적으로나타나서그에대한대처로국가의필요를드러내고있을뿐이다. 또그것이마침내국가권력의법질서라는이름의의사비폭력체제의맹목적인이유이기도하다. 쉽게신화를예로들자.

어느날난타국의왕이국민의반란에곤혹해서석가에게정치의요체를물었다. “우선무엇보다도타국하고의전쟁을그만둘것이다. 전화(戰禍)로오곡이영글지않고질병이유행하고도덕과리가문란해진다. 전쟁을하면서나라를다스릴수없다.”

라고대답했다던가. 이것은어떠한강권국가라도안정된통치와국가의존재기반으로비폭력적통치를지향하는것밖에는안정이있을수없다는원칙을말하는것이다. 폭력지배를드러내고있는사회, 앞서예로든팔레스타인, 혹은전쟁중에는인민의생산노동은완전히이루어질수없다. 다시말해서국민의생산물을수탈함으로써성립되는지배권력의존립기반도그야말로근본에서부터위태롭게된다는것이다. 이상을바꿔말하면,

1) 국가는존재의근저에인민의비폭력적일상의영위를깔고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일상질서는권력에의해서만유지된다고바꿔치기해서그러한의사비폭력체제를법제화 ☒ 기구화하여의사비폭력상황을통치의결과로과시한다.

3) 그러한체제를유지하고완벽하게지킨다는명목으로자기권력을지키기위한폭력장치를더욱증대하고독점한다.

4) 그것은인민본래의비폭력일상의의미에대한각성을방해하고인민자신의사회관리능력의자각과발현을저지하는의회제민주주의 — 투표와선거 — 로인민스스로의지를자승자박하는기구를만든다.

요컨대, 국가의국민지배는일상에서비폭력적가면을완벽하게하여이제민주주의라고불리고‘반테러’를주장하는국가체제군에의해관철되고있는것이다.

⁷ 에스페란토어(語)는자멘호프(L.L.Zamenhof) 가모든민족어들간의평등과중립에기초해서만든세계공통어.

VI. 의사비폭력체제와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의사비폭력체제화

권력지배는폭력을될수있는한억제하고또합법적인명목을고수하는 것으로폭력국가라는것을위장한다. 이렇게해서인민의속성인일상적비폭력성은의사비폭력체제하의일상성으로고쳐져서부여된다. 그래서인민의일상이권력에의존함으로써성립된것같은환상을갖게되는것이다. 국가와인민이상호의존적으로외쳐대는슬로건은“폭력은악이다!”, “우선얘기하자”, “민주주의를지켜라!”이다.

우리들의모든일상생활을지배하고침해하는것으로서폭력이진짜로 결정적인의미를갖는것은, 지금, 사회폭력, 기구폭력, 장치폭력이어느 사이엔가질적전환을끝내고우리들의일상에서는거의보이지않게된때이다. 조직화되고, 기구화되어자체의생명력을갖게되었을때부터이다. 그것은단순히인민이폭력장치를의식하지못하게하는데만문제가있는 것이아니라, 실로질적전환으로알아보지못할만큼변화하여지배의배경에존재함으로써우리들과근본적으로대립하게된다. 폭력의사회화 — 전환은, 국가의지배기구인민주주의안에서더욱완벽하게나타난다. 민주주의는국가와유착하는순간부터원리적입장을상실하고기만과환상으로바뀌어의사비폭력체제의폭력그자체의도구가된다. 그리고확실히 국민은, 모든개인은헌법앞에서자유롭고평등하므로, 기본적인권을보장받는다. 그러나인권보장, 삼권분립, 국민주권등민주주의의원칙은 어디까지나법적으로그런것이고실질적으로는법치국가로서의계급적 불평등, 부자유를고정화하고자본독재의본질을은폐하는위장에불과하다.

법치국가의폭력 — 군대, 경찰, 재판소, 감옥등 — 독점을합법적으로만들고그일방적인행사를법률의이름으로휘둘러댄다. 그러나한편에서는, 공공복지의이름을빌려인권제한등민주주의의원칙을이러저러하게침해하는국가의행위까지도당위화하는역할을다하게된다. 게다가선거, 투표, 의회라는제도가뜻하는 — ‘네가투표로선택한의원이정한법규로’라는논리는우리를자승자박하는함정에빠뜨린다. 그야말로의사비폭력체제로서항상인민을대량으로죽이는기구를내부에숨긴채비폭력사회로서의허상을전면에내세우고있는것이다.

하고있다는것을알았다. 확실히지금일본은, 더구나오끼나와는절박한 ‘위기국면’이라고해야하는정치상황에있다. 그러나그러한‘절대성’은지금일본보편성, 일반성이기는하지만, 좀더얘기하자면, 그것은순전히개인의위상에있어서의심정적인생각의심각성, 절박성에따라서이러저러하게표출되는것이다. 다시말해서일반성, 보편성보다는더강하게개별적인심정에따라서‘결의’되는것이다. 그렇다면토야마씨는‘테러’라는방법을앞에놓고“나는어떻게하는가”를말하면되지않는가.

“그일당들보다도재빨리그것을예감하고입수하지않으면안된다”고 할때의‘일당’이라는것은누구인가. 여기서주체가되는‘일당’은현지사나 일미의고관은아니다. 좀더전면에끌려나온것은“순하고겉많은오끼나와사람”, “예절바른데모나집회”, “피해가없는게릴라”, “기지의돈에도여드는구테기”이다. 이것은곧자기주위의‘전부’를잘라버리고‘혼자’가 됴으로써 (테러를최후의선택지로하기이전에) 빼도박도못하는자신을 향하는테러의절대화로나가는것이다 (테러를필수로하는‘절대상황’이란이런이유로마침내는만들어지는것이다).

만약에메도루마씨의픽션의결말이 3 세의남아를목졸라죽이려고 하다가주저한 나머지 결국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면이작품의충격효과는반이상이없어졌을것이다. 또는강간당한오끼나와인여자하인이가 해자인미군병사의가족을사살했다면테러가아닌것이될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복수를위한살인사건이되기때문에오끼나와의절대상황은훨씬뒤에있는배경으로멀어진다는것은확실하다.

일반적으로테러는반체제측에있는개인또는소수조직이압도적으로 강력한체제의지배에저항하고반대하고이의제기하기위해공중납치, 점거, 또는요인등의유괴살해등을폭력행위 (전술) 로삼는다. 물론그것의 성공여부에관계없이테러가승부를결정하는것이아니라는것은이미과거의역사가보여주고있다 (더구나그것의연장확대로서게릴라에대해서성급히결론짓는다면일본에서의가능성은없다고해야할것이다).

과연테러나게릴라는국가의폭력성을도발하고현재화하는데서국가의본질을보여준다. 그러나좀더얘기하면, 테러나게릴라가도발하는국가의폭력성은어디까지나형법이정한범죄의단속, 즉대의제국가가승인한합법적인‘의사비폭력’인것이다. 그러한점에서테러와게릴라는무엇보다도그들이거점으로삼는국민에의해서, (다시말해서자승자박적으로) 체포되고처벌되는것이다 (테러는공적분노의사적해소일수있어도문제의근본적‘해결’일수는없다. 가령일시적으로반응이있었다해도즉시닥쳐오는대대적탄압이많은관계자를끌어들게된다. 더구나순진무구한어린애를살해하는것으로는테러의의미를보편적으로납득시킬수도없을것이다).

토야마씨의코멘트에서맨끝에‘코자의폭동’이나오는데, 폭동과테러는일견비슷하다해도전혀질이다르다. 여기서나는“자연발생적코자폭

사회학의 분석과 자료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검은 분노를 어떻게 정치화했는가라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KOZA』에 실려 있는 「기지의 흑인이 오끼나와 사람들에게 보내는 호소」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폭동은 전적으로 정당한 행동이었고 그밖에 농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없었다”. ‘폭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지평에서 사고하기 시작해야 할 때다.

절대상황과 테러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나 개인은 ‘테러’는 잘 안한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테러는 말려도 말릴 수 없는 것을 포함해서 테러의 시비를 논하고 싶지 않다. 그런 데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히려 “부득이하다”, “어쩔 수가 없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특히 역사로서 예를 들면 안중근, 박열, 와다규우(和田久) 등 특히 사회운동사에서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다).

내게 테러는 ‘절대상황’에 놓여진 사람이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발견하지 못한 막다른 데 빠진 심정이 선택한 ‘1인 1살’적 자살 행위와 같다. 다시 말하면 ‘폭동’이 아니며 ‘게릴라’도 아닌 개인의 결의에 입각한 ‘폭력적 결재 행위(暴力的決裁行爲)’이다.

그런 데도 도루마씨의 작품이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 질적인 상반되는 입장을 시비 없이 충격적으로 거칠게 내밀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테러의 내용이 세 살배기 사내아이를 노렸다는 데서 오는 불쾌감, 혐오감이다. “최저의 방법이 가장 유효”인지 아닌지를 따로 하고 작가의 상상력이 이러한 영역까지 침입하는 것을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 오끼나와 섬 사람들도, 픽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가정의 테러를 틀림없이 부정할 것이다. 그런데도 — 이 작품은 테러의 배경인 ‘오끼나와 상황’에 대해서 야마토(ヤマト)⁶의 우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거의 방관자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취준다. 그것은 이른바 양식 있는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양심적 가책’,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갖게 한다. 토마야씨의 “모든 의미에서 테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언은 실로 그러한 ‘양심적 가책’까지 포함하면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들의 주위까지도 그런 ‘절대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꼼짝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생각이 미치는 데서 새삼스럽게 테러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야씨가 테러를 문제삼을 때 우선 당초에 제시해야 하는, 테러를 필요로 하는 ‘절대상황’을 암묵적으로 공통의 식으로서 전적으로 생략

의사비폭력과 의싸움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떻게든 비폭력 사회로서의 허상을 완벽하게 할지라도 정치 부패와 함께 그 가면, 옷 속에 감춰 입은 투구처럼, 때때로 노출시킨다. 때로는 비폭력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조직된 폭력 기구의 물리적 행사로 환원한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자의적 행동이다. 군대 조직의 일원인 병사가 주민을 체포하고 능욕하고 고문한다. 그러한 폭력은 특정 개인의 개별적 성향에 따라서 더욱 잔혹하게 위법으로 행사되면서 개인 폭력으로서의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 폭력은 당초의 미의 개인 폭력과 똑같이 보이지만 실은 크게 변질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대등하지 않다. 물론 입장이 역전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둘째로, 가해자가 지닌 압도적인 장비의 우위 상황에서 약소자, 무능력자에 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로, 피해자 — 주민 — 는 자기의 가족이나 집단과 강제로 떨어져서 고립된 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가해자 개인의 배후에는 법적인 조직이 존재하고 있어 언제나 그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 넷째로, 피해자는 정당방위 수단까지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모든 책임을 덮여 쓴 악으로 처벌된다. 이것은 당초 단순한 개인 폭력이 의사비폭력 체제로 개인에게 환원될 때 그것은 이미 사회 폭력으로서의 폭력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에게 수렴한다는 폭력의 특성은 사회화되더라도 그 자체로 나타나지만, 개인 폭력의 원래의 미나 내용과는 다르다는 데서 인민의 생명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것은 다음의 것까지도 명백하게 한다.

1) 권력이 표현상 비폭력 일상을 명목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 — 폭도나 범죄자의 출현은, 어쨌든 지치안을 혼란하게 하고 인심을 불안하게 한다는 데서 그들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이 된다. 데모의 폭동화나 범죄 빈발은 의사비폭력 체제를 혼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권력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서 권력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숨겨 놓았던 권력 장치를 백일하에 발동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의사적인 비폭력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따라서 우리들이 만약 일상 생활에서 구현하고 있는 자치 관리 능력을 진작 스스로의 것이라고 자각하고 권력의 지배 질서가 이제는 불필요한 눈가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권력의 배후에 있는 폭력 장치를 무용지물로 인민의 눈앞에 끌어냄으로써 권력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인민의 정신 구조까지도 바뀌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3) 그렇지만 인민이 권력에 대해 쫓기 할 때 그것은 또 일상 생활의 비폭력 상황 — 의사이기도 해도 폭력 그 자체는 아닌 — 을 위협한다는 자기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의 복지, 사회 안녕의 명목하에 권력에

⁶ 일본 본토를 의미.

의한혹독한탄압과매스컴의탄핵캠페인이집중된다. 권력의폭력적탄압을당연한것으로생각하는심정은널리퍼져있다. 다시말해서, 인민의반역은권력의토대를뒤흔드는것이면서동시에인민의비폭력성그자체와도대립하는모순을가지고있는데서인민의일상과괴리되어오히려적대시될우려가있다.

그리고우리들은이상세가지여건을복합적으로일체화하는것으로서, 마침내이제새삼스럽게비폭력직접행동을택할수밖에없는것이다.

돌아보니까일어서서창을열려고한다. 사내아이인데 3 살쯤됐을까, 곧차를세우고뒷좌석으로돌아가서올어대는조그만몸을안아올린다. 그리고, 뒤에서목을졸랐다. 목구멍속에서무엇이터지더니오물이팔을적신다. 아이의옷으로닦고다시운전해서숲속에있는폐목이된양계장그늘에차를세웠다. …… 국도에나와서택시를두번갈아타고아파트로돌아왔다.

…… 돌아오는길에기노만 (宜野灣) 시해안공원에들렀다. 3 명의미군이소녀를강간한사건에 8 만여명이모였지만뭐하나하지못한희극이몇몇날처럼생각났다. 그날회장한구석에서생각했던것을이제겨우실천할수있었다. 후회도감회도없다. 불안에떨던조그만생물의체액이어느날돌연독으로변하는것처럼, 자기의행위는이섬의자연이고필연이라고생각했다. ……

문제제기 2 — (테러)

다음은 『미스즈 (みすず)』² 466 호 (2000 년 1 월) 에게재된토야마이찌로오 (富山一郎) 씨의글을일부 옮긴것이다.

모든의미에서테러를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그앞에정지하지않고한없는상

상력과인내심으로그일당들보다도재빨리그것을예감하고입수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메도루마쉰은코자를생각하면서이작업에착수했다. 오끼나와라는이름에달라붙어서위기상황을꾸준하게말하는자는데도루마쉰의 『희망』 이우리들의눈앞에서묘사한어린애의시체에서시작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말의힘을생각하게한그의에세이에의해서나는구조되었다. ……

지금은고인이된세끼히로노부 (關廣延) 는오끼나와가일본에복귀한 1972 년 5 월 15 일의코자를이렇게묘사했다. “지금어떠한노력으로도그무게와같은격정으로조직할수없는검은분노가이땅을뒤덮고있다.”³ 이렇게조직되는것이불가능한검은분노가정치화되기위해서는어떠한논의를거쳐야하는지를문제삼아야할시기이다. 이독설가 (毒說家) 의말을지금다시읽고싶다. 그리고역시코자가초점이된다는것은명백하다. 1970 년 12 월 20 일심야에서다음날새벽에걸쳐서일어난폭동을생각하는것이지금필요하다. 오끼나와시 (市) 평화문화진흥과 (果) 의오랜작업끝에태어난 『KOZA』⁴, 『미국이본코자폭동』⁵은, 역사학이나

² 출판사이름.

³ 『沖繩 1972. 5. 15』 (關廣延, 海風社, 1987 년).

⁴ 『KOZA』 (那覇出版, 1997).

⁵ 『米國から見たコザ暴動』 (ゆい出版, 1999)

부록 2. 테러를 초월하는 것

문제제기 1 — (오끼나와)

우선 처음에 아사히신문 (1999. 6.26) 석간에 실린 픽션, 오끼나와의 작가 메도루마순 (目取眞俊) 씨의 『코자희망 (コザ希望)』¹에서 추려내서 대강의 줄기를 소개하겠다 (저자에게는 실례지만, ……은 중략 부분)

6 시뉴스의 톱은 코자의 시가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숲속에서 행방불명이던 미군 병사의 어린애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식당에 있었던 몇 사람의 손님과 점원의 눈이 텔레비전을 주목한다. 사체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고 현 (縣) 경찰에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로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상투적인 말을 한 다음, 거리의 소리가 소개된다.

…… 취재기자가, 신문사에도 낸 범행 성명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있다. 앞에 있는 석간 1 면을 본다. 성명문의 사진이 실려 있다. 지금 오끼나와에 필요한 것은 수천명의 데모도 아니고 수만명의 집회도 아니고 한 사람, 미국인 어린이의 죽음이다. 위협적인 예각과 직선의 빨간 글자

…… 헬리콥터가 촬영한 숲과 코자 시가지의 화면이나 오다가 현지사 (縣知事) 와 일미 (日米) 정부 고관의 코멘트가 이어진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를 노린 범행에 대한 분노와 증오, 웃음을 참고 카레라이스를 입으로 나른다. 흥분된 말 뒤에 있는 초조감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놈들은 유순하고 얼빠진 오끼나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반전이 아니기지만 대니 떠들어댔지만 고작 집회를 열고 질서 정연한 데모로 얼버무리려는 유순한 민족, 좌익이니 과격파니 해봤자 사실상 해가 없는 게릴라를 펼칠 뿐이지요. 인테리나 유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무장하는 것도 아니다. 군용 지사용료니 보조금이니 기지가 누는 똥과 같은 돈에 몰려드는 구데기 같은 오끼나와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화해의 섬, 구토가 난다.

…… 최저의 방법만 이유효한 거다. 멈춰서서 투덜거린다. 거리 저편에서 카메라가 돌아간다. 보도로 들어서서 걸음이 빨라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아파트로 돌아왔다.

…… 시영단지 북쪽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스산한 길에서 차가 흔들릴 때까지 어린애는 눈을 뜨지 않았다. 뒤에서 나는 울음 소리에 차를 세우고

¹ 3 명의 미군이 소녀를 강간한 사건에 8 만여 명의 오끼나와 사람들이 모였던 코자 폭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VII. 게릴라, 인민성의 문제

게릴라, 그 의미와 행방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민과 권력자의 다른 점은 우리 인민이 권력자와 대결할 무기를 빼앗겨서 갖고 있지 않은 데 비해서 그들은 항상 크고 강력한 폭력 장치를 보유 독점하는 데 있다. 그리고 애당초 우리들은 무장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장을 필요로 하는 데 있다. 그들은 폭력 장치를 위협적으로 소유하고 수시로 행사함으로써 그 자신을 유지할 뿐이다. 게다가 인민이 적대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항상 인민을 적대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또 인민과 권력자의 역사는, 그 입장은 거의 고정되어 있으면서 그 관계를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상황으로서 변화시켜 왔다. 지배 권력의 폭력 장치는 조직의 근대화나 과학 발달에 의해서 현재 하계 강화되어 때때로 그 위력을 국가 내외로 강력하게 과시하고 발휘하였다. 그런데도 인민의 지위와 처우는 최근 수 세기 동안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개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은 공포 정치를 대신해서 더욱 교묘한 회유와 타협, 당근을 낚시 밥으로 던져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인민은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만들어 그들의 연합을 도모함으로써 전체의 의지 — 예를 들면, 탄원, 상소, 진정, 도피에다가 나아가서 폭동, 야습, 스트라이크 등의 인민 고유의 방법, 다시 말해서 직접 행동을 통해 그때마다 패배하면서도 오랜 세월을 두고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 온 것이다.

19 세기에 이르러서 노동자 계급이 등장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그들의 조직화와 단결은 다가오는 인민의 시대를 예언하며 빛나는 전망을 열어 주는 것 같이, 인민 측이 투쟁 주체로서 질적으로 변화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했다. 노동자 계급과 더불어 생겨난 노동 운동, 사회 운동, 혁명 운동은 20 세기 세계를 뒤흔들고 움직이는 새로운 운동의 힘이 되기도 했다. 또, 그것은 세계 대전 중의 피점령 지구 주민의 저항이나 전후 점령지 분할 문제, 민족 독립 운동의 봉기 등의 지하 조직, 게릴라, 빨치산, 레지스탕스와도 연계되기도 했다. 이들은 옛날의 농민 반란이나 종교 반란 등의 유산과 교훈까지 흡수하면서 인민 고유의 직접 행동과도 연계된 새로운 무장 투쟁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점차로 단련되어 인민만이 이룩할 수 있는 인민 고유의 투쟁 방법을 발전시키고, 게다가 권력 측이 택할 수 없는

투쟁형태라는데서유효성을증명하는것이였다. 이에관해서베트남전쟁 당시의미국무부차관로스토프는다음과같이말했다.

“미국은하나의예외를빼고모든형태의군사침략을무력하게만들어 승리했다. 그예외라는것의하나가게릴라전이다. …… 그것은하노이가 중공의지지에라오스, 남베트남에서펼친방식이며다이어동북부에서준비하고있는방식이다. 또, 카스트로가카리브해각국에확대하려는방식이고공산주의자가아프리카에갓고들어가려는방식이다. 그들이왜게릴라전을택하는가하면 …… 게릴라한명에대해서정부군 15 명이필요하다는게릴라전의산술이있다. 이것은게릴라측에서는서방측군사주력(主力) 과의대결위험이낮다는것, 약소국고유의약점을이용한정치기술을발휘하기쉽다는것때문이다.”

이러한미국고관의발언을바꿔말하면 —

1) 게릴라에게는국가의거대한군사장치도충분한역할을못한다. 정면대결을위해폭력기구를최대한발동해서전투를시작해도이겨야할전투를헛다리짚게만들어예기치않을때불의의공격을받는다.

2) 게릴라전은전투의승패에기초를두는게아니라, 정치기술의발휘에기초한다. 다시말해, 종래의전쟁개념이나전투양식의규격과그들을완전히벗어나면벗어날수록효과적이다. 그리고게릴라의본질은원칙적으로무장투쟁의승패에있지않다. 열악한조건에서더구나근대병기와거대물량에대항해서지고또저도결코지지않는인민의원리와방법을구현하는데있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게릴라가인민의비폭력적본질을충분히구현하고있다는것은물론아니다. 비폭력적본질의맹아(萌芽)와방향을시사적으로나타냄으로써그본질을제시하고있었다는데불과하다. 일반적으로‘게릴라’라고할때그것은무장한유격전소집단을가리키는게보통이다. 그것은불의의습격이라도전투를주목적으로하는한그자체의무장강화를더욱더추구할수밖에없다. 그것은적의정치사정의변화나거듭되는전략적착오등의기회까지합쳐서전투규모의확대, 부대편성의대형화와조직의근대화를이루어, 전략전술적양식에도근본적인질적전환을추구하지않을수없다. 즉, 게릴라를병기, 병사의수와질의우열에기반을둔국가적인군대차원의지위로정치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다. 이결과입수할수있는한근대살상병기를구입하여베이유가말한자기의병사를사지(死地)에보내어싸우는것이다. 그리고당연히인접국가또는그러한세력등의원조개입, 대리전쟁까지도피할수없게된다. 이것이게릴라의역할이최상의조건에있을때의결말이다.

그것은인민고유의, 인민만이활용할수있는유효한투쟁방법을버리는것이다. 권력탈취의나라따먹기전쟁은인민군과군대조직이라는구분관계에서오직군사적승리를위한군사신앙이되어모든것을국가체제화하는것이다. 이렇게게릴라는그것의집단기구로서의폭력때문에애초부

⑥ 비폭력직접행동은방어적, 수동적, 정신적(불가시적)이다. 그러나그렇기때문에역사의연속성이지속되는가운데있는작은달성을어느사이언가만드는보이지않는축적이라고할수있지않을까.

⑦ 비폭력과직접행동을하나로 묶는것은본질적모순은아닌가하는 질문을때때로받는데, 그렇지않다. 예를들면생물의자웅, 인간의남녀가 — 생물본래의사명 — 생식이라는남녀관계가새로운생명을계속해서만드는것같이비폭력직접행동은생명생활이라는점에서어떠한폭력지배도마음대로할수없는힘이다.

⑧ 사또오군의패러디명함이나전단이나야유가무의식중에모든이를웃기게하는따위의해학, 풍자, 특히놀이그자체였다면더욱좋았는데. 여기서빠진것이비폭력직접행동의관점이다. 그보다도사또오군이만약에알아차리고여자들의입장에서문제를제기했다면틀림없이폭력·비폭력의본질에더깊이접근했을것이다.

⑨ 역사의연속성과거기서생기는작은성과는, 완전히비폭력직접행동의자각과그확대를이끄는여기서부터여자들이열쇠를쥐고있다. 마지막으로이것을강조해둔다.

1999. 2. 8(未完の完)⁶

⁶ 『1997 ‘로프트플러스원(ロフトプラスワン) 습격을용서하지않는공동성명’전 기록(全記録)』에게재.

아시아반일무장전선(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⁵, 일본적군파등의체포자구원(救援)에당연히관계하고있었다는것이다.

그리고지금황제반대, 원전반대, 사형제도폐지, 국가배상청구소송등에아주조금이나마관계하고있는것은무엇등간에그것들이의사비폭력화한국가폭력의느슨해진틈, 허점에대치하는특징을지닌과제의장이기때문이다.

역사와비폭력행동, 여자들

이쯤에서결말을서두르겠다.

요즘내가자꾸생각하는것은역사의연속성이라는커다란흐름속에서의변천이라기보다미완의작은성과 [小達成] 가있다는것, 그리고그의미에대해서다(이를테면그것은비폭력직접행동의사회적일상을, 그것을자연스럽게나타내고있는여자들의여성사에서, 나는어머니나할머니가걸어간 50 년, 100 년전과지금나와가까운지기인그녀들과의공통성과차이점을알면변천이라고만말할수있는것이아닌역사의의미가밝혀질것이다).

그것을이폭력론노트에이어서말하면, 강한자가 지배하는직접폭력사회에서현대국가의의사비폭력체제사회까지오는데는약한자의길고도이러저러한단계의도정(道程)이있었다. 그리고그러한연속성에서앞으로도그것이계속되면서결코멈추지않는다는역사에대한나의신뢰이다. 그것이내삶이기때문에내가역사에책임질문제는아니다.

의식하든안하든간에결국에는비폭력직접행동의작은성과, 미달성(未達成)이거듭되면서역사를계속해서만든다는확신이다. 역사를강에비유하면, 개인의일생은강의흐름에따라흐르는무(無)와같은한방울의물에지나지않는다. 나는그런무와같은한방울의물로서흘러가면서, 때로는그흐름이소용돌이치거나멤돌다가급하게흘러가는결물살을헤엄쳐왔으며, 생각하면꽤나재미있게내가하고싶은대로떠내려왔다고생각한다. 그리고그러한흐름이바로문자그대로내운동의한순간을뜻하는것이였다. 조금만더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를계속하겠다. —

⑤ 폭력은극복적, 적극적, 현상적(가시적)이다. 따라서폭력의행사는의사비폭력체제하에서는비일상적인것으로항상여론의감시를당하고그것의과잉행사는거꾸로억제되지않을수없을것이다.

⁵ 1979 년조선재침략을획책하는일본자본을공격하기위해만들어진조직이다. 다이도오지마사시등이미쯔비시등등의재벌기업에폭탄공격을했고, 천황을폭살하려다가불잡혀사형을언도받았으나꾸준한사형반대운동으로아직수감중에있다.

터반드시권력화의요소와지향을갖게된다. 그래서처음에는대단히인민투쟁적이던게릴라가그들의무력이커지면서어느시점부터실로반인민적, 반혁명적으로변해버린다.

사파티스타가시사하는것

여기서 1994 년멕시코에서무장봉기한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 : Ejercito Zapatista de Liberacion Nacional) 의마르코스 부사령관의시사적인발언을소개하겠다.

▽ 되풀이하지만우리는권력도정당이되는것도바라지않는다. 그러한것은필요없다.

▽ 무기에의해서권력을장악한자는결코통치해서는안된다고우리는생각하고있다. 무기와힘으로통치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

▽ 우리가지향하는것은, 민주주의와정의와자유를요구하기위해서이제는지하로들어가거나무장하거나할필요가없는때이다.

▽ 우리는어느날인가병사가더필요치않기위해병사가된전투원이다. (중략) 우리는이러한자기소멸로가는길을가다가소멸할운명인직업을선택했다. 우리는무장투쟁을 1960 년대게릴라가생각했던것같이유일한길, 유일한수단, 모든것을결정하는유일한진실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 EZLN 은엄밀히정의된이데올로기를갖지않은봉기운동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나사회적공산주의나카스트로주의나게바라주의등등고전적인정치적경우어느것과도합치하지않는다. 무장투쟁이해야할것은문제 — 자유의결여, 민주주의의부족, 부정의(不正義) — 를제기하는일이고그런것을이룩한뒤에는소멸하게된다.

▽ 혁명운동이나그지도자는모두정치지도자나정치적주역이되려고하는경향을갖기때문에‘혁명적’이라는용어는적절치않다. 이에대해서 EZLN 은어디까지나사회반란을계속하겠다. 혁명가는항상위로부터변혁할것을바라고있다. 그러나사회반란은밑으로부터변혁할것을바라는것이다.

(『이미충분하다! 멕시코선주민봉기의기록』¹, 『마르코스여기는세계의변방인가』²에서)

¹ 『もうたくさんだ! メキシコ先住民蜂起の記録』(現代企劃室, 1995).

² 『マルコスここは世界の片隅なのか』(現代企劃室, 2002).

그러면위에서얘기한게릴라의현대사적경위에서도는이상과같은사
파티스타의새로운시사로부터우리들은다음과같은물음을제기할수있
다.

- 1) 국가체제에대한게릴라의투쟁을권장하는것이다시국가라는폭력
기구에서로잡히는악순환을어떻게, 어디서단절할수있는가?
- 2) 무장투쟁으로서의게릴라에대체하는이들테면비폭력게릴라같은
것이있을수있는가? 그것은어떤것인가?
- 3) 역사적게릴라의여러가지요소중에서게릴라의인민성과유효성을
이어받아서우리들의미래와전망을타개하는핵심은무엇인가?

‘폭력단’의의미

규모와성격을달리하는이러저러한젊은이들의그룹, 알기쉽게말
해서폭주족이나중소야쿠자조직, 나아가서기업화한거대조직등아직도
어떤종류의개인폭력의조직화, 집단화의여지를남기고있는현실은, 겉
으로그렇듯한비폭력사회를허무는것이어서논리적으로모순된것같이
보인다.

권력이왜그렇게깡패들의조직화하고집단화된‘폭력단’의존재를용
납하는가? 그첫째의미는그들이권력에직접적으로아무런공격을가하지
않는, 오히려영합하는존재라는것이다.

야쿠자조직은경제연구소와우익단체로위장, 총회권³ 등기업화되어
있지만권력은자기의권위가크게실추할우려가있을때만본보기로단속
할뿐이고서로친숙하게그들의존재를인정하고있다. 덧붙여말하면, 한
때야쿠자조직에가입하는거의모두가극빈층출신이고, 아니면조선인,
피차별부락민이거나대부분은사고무친의떠돌이로오갈데없는사람들
이었다. 야쿠자조직은그들에게요세바(寄世場)⁴, 이케바(生け場)⁵라
는사회적존재의의미를갖고있었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 그러한것이
라고할수있는것으로 1924 년이른바데끼야(テキヤ)⁶의젊은층이나나
키스트들의 — 야스야간이치(安谷寛一), 와타신기(和田信義), 타카
시마산지(高島三才)⁷ 조력을얻어‘전국행상인선구자동맹(全國行商
人先驅者同盟)’을만들었다. 금방남쪽에서는큐우슈우에서북쪽홋카이
도오까지 16 개지부에수천명으로늘어났지만그들의유동성때문에공해
산할수밖에없었다. 또, 관동대지진때많은조선인을자경단(自警団)으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두서없이자의적으로생각하는대로늘어놓으면,

① 직접행동이란생산과창조, 예술과문화의자치관리, 노동과유희
의자기향유이며그것이바로약한사람들 — 인민 — 만이일상생활에서
이루고수행하고있는생활력인것이다. 그리고그것을보증하는절대조건
이비폭력사회인것이다.

② 애당초비폭력직접행동은우리들약한자만이갖는생활력 — 생명
력 — 의힘이라는것을우선제대로확인하라.

③ 국가는그권력을직접적폭력이아니라의사비폭력에서의폭력으
로개입하고지배함으로써구체화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비폭력직접행
동은본래의그대로이고게다가그렇기때문에의사비폭력체제를거부하
고저항하는것이된다.

④ 비폭력직접행동은승리를지향하지않는다. 오직지고또저도지
지않을뿐이다. ‘두부에뭇’, ‘버드나무에바람’으로대치한다. “이기는게
아니라끝내지지않을뿐이다”라고할때비폭력직접행동은상대방의의사
(擬似) 를오히려반대의힘, — 상대의약점으로삼는의미와방법이된다.
그런것으로국가를거부하는영구혁명 — 역사로이어진다.

여기까지썼는데, 아무래도불충분하고할말이더있는것같다. 비폭력
직접행동의방법을말해달라는질문을받으면나는대답할말이없다.

그러나비폭력직접행동은어떤사태, 어떤상황이눈앞에있고그것을
향해서몸을내밀며부딪치는방법의다양성, 임기응변을즐기는법 — 개
인의놀이에서시작된다고하면조금은통할지도모른다. 여기서내가이제
까지해온것을예를들면금방“고작그거야!”하겠지만, — 사또오군이로
프트에서한것과비슷한, 이를테면권력에대한“귀찮게구는 5 월의파리
나잠든꽃속의모기²”처럼때로귀찮게하는정도의것일뿐이었다 (이에대
해경찰나부랭이들은기소도, 구류도못했다. 그보다도신문이대서특필
한탓에선전이되어, 기껏해야 5 차례밖에안되는‘가택수색’이있었을뿐
이다).

그런데 — 요즘은이제나도나이를먹어거의움직이지못하지만 — 좀
전까지는노동자소수파의데모나피켓팅, 연좌데모등에조금기대를걸고
가마가사끼(釜ヶ崎), 산야(山谷), 거기다가新宿(新宿)³, ‘아끼노아
라시(秋の嵐)’와이노켄(イノケン)⁴이문제제기한것을응원하면서, 동

³ 돈을받고주주총회등에참가해대주주의앞잡이역할을하는사람.

⁴ 노동력을사고파는인력시장이나노동시장.

⁵ 생활하는곳이나삶터.

⁶ 서민들이벌이는축재같은곳에서변변찮은싸구려물건을파는노점.

⁷ 기로친사(ギロチン社) 사건에관련, 훗날나고야의오오야붕(대두목) 이됨.

² 잠자고있는꽃속에들어간모기처럼벌힘을쓸수없는상황이나상태를의미함.

³ 가마가사끼, 산야,新宿모두요세바(寄世場), 이케바(生け場) 의의미로서노동
시장이자삶터전.

⁴ 하루주꾸의노점. 경찰단속에도노점을강행, 운동처럼진행됨.

폭력의변질과전환

폭력이조직의의미하는것이되는바로그순간부터폭력은변질된다. 다시말해서, 인간적이기때문에동물적생명력이라고할수있는본래의생명력으로서의의미를상실하게되는것이다. 그것은첫째로사또오군의경우에서본바와같은조직폭력대개인이라는노골적인우열의형태를취한다. 그러나그렇기때문에대체적으로멈추지않는다. 둘째로인원수대(對) 인원수 → 조직체조직으로전환한다. 우열의확대를통한균형화이다. 셋째번전환 — 즉첫째, 둘째의과정을총괄하고게다가불가시(不可視) 가된구조폭력 → 의사비폭력체제로수렴함으로써고정되는것이다. 그것은약한놈이그것을승인하고지지해서절대폭력이라는의미의것이된다. 바꿔말하면, 사또오군이전기파에게당한로프트에서의폭력사건은앞의첫째단계이면서그다음에나오는대응과뒤엎어서폭력의본질에대한성찰을제기하고있다.

의사비폭력체제의현실

되풀이하게되지만, 현대사회의최우익에위치하는최대의조직은국가이며구체적으로는정부이다. 그것은대의제로시작해서법규, 조례등에의한질서유지를명목으로하는합법적폭력장치 — 경찰, 재판소, 형무소를구비한의사비폭력체제를구성하고있다. 국민은그러한의사비폭력이데올로기에무감각한채로비폭력질서에합의하고되풀이되는선거에의해서추인(追認) 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여기서제기되는질문은, 이렇듯자기가자기를결박하고있는것과같은상황에서우리들은무엇을할수있는가, 무엇을무기로저항하는가이다. 대답은단두가지방향밖에없다. 그것은폭력적저항인가비폭력직접행동인가이다.

그러나이미밝혀진바와같이전자는단한번에끝나는도박이다. 다시조직적대응 — 이것의강화 ☒ 확대는권력의탄압을초래한다. 거기서나오는운동의위기와부침이때로스파이문제나내부투쟁이된다는것도또한이미충분히본바이다 — 그렇다면단한가지남은것, 비폭력직접행동뿐이다. 이제선택의여지는없다. 지금그것은무저항주의나비폭력주의또는비폭력행동으로표현되기때문에애매하게되지만실로그것을자각하는데서폭(暴) 이아닌(非) 힘(力) 으로서직접행동인것이다.

로부터보호해준쓰꾸다마사등많은조직체가있었다는것은그들의사회적존재의의미를말살할수없는뿌리깊은이유이다.

둘째의미는, 오뉴월파리떼처럼 생겨나서파생하는무수한그룹에대해서아무리강대한국가권력이라해도완전히파악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다시말해서수적으로어마어마하기때문에경찰이완전히대응할수가없다는것이다. 그런데이문제는중요한핵심을건드리는데, 여기서이것을암시하는데그치겠다. 즉, 잡초처럼돌아나고파생하는규모나성질이다양한‘폭력단’과같이무수히많은인민의개인또는소수무명의갯가지그룹에의한특히단한번의게릴라적활동에는국가의폭력기구는이에충분히대처할수없으리라는것이다.

테러에대하여

그러면여기서, 이제금세기최대의정치과제가됐다고할수있는‘테러’에대해서얘기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단순히게릴라 이전의단계에서대개개인의절박한심정에서시작한다. 예를들어, 지금팔레스타인에서전해지는상황 — 이스라엘병사들이가하는무법행위때문에일상생활은궁지에몰리고가족이나친구등이이유없이살해된다. 그러한상황때문에최후의최후라고생각하는사람, 목숨을버려서라도하는, 궁극적생명력이라고해야하는것이도리어테러를감행하게한다 — 고말할수있을것같다. 그들은그들이생명을걸고행동한결과는보지도, 듣지도못한채일순간에끝난다. 자신이큰성과를회구했다하더라도결코그테러가피아(彼我) 의입장을역전시키거나국면을번복시키는승패에크게영향을주는것이아니다.

게다가그렇게개별적인형태로나타난테러는때때로궁지에몰린저항조직의일개전술로, 저지되기는커녕오히려칭찬받는상황이일반화되고있다. 가령, 18 세의소녀가자폭테러한보도에대해서우리들은도대체어떻게대처하면되는가. 여기서나는나의입장을밝혀두고싶다. 나는우선무엇보다도먼저소녀의입장에선다. 여하튼하나밖에없는생명을걸고자폭테러를감행하는이외에방법이없었던절박한소녀에대해서나에게는이런저런시비할여지가없다. 그사실의절대성에대해서그저머리를숙일뿐이다. 그리고폭탄에희생된사람에대해서도그들의불운, 불행을전적으로슬퍼할수밖에없다. 그리고나서그일과직간접으로연계된조직이문제가된다. 간단하게말하면그것은옛날전쟁말기에지원이라는이름으로몸으로부딪치는돌격법, ‘가미가제특공대(神風特攻隊)’를전술로택한일본군참모본부와같다는점에서그어떠한이유가있다해도긍정할수없다. 왜냐하면, 말할것도없이그러한전술로승리를쟁취할수없고만일그

러한투쟁이 힘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은 반인민적인 강권적 전쟁국가에의 지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만 말해 두겠다.

테러는 명백하게 폭력이다. 그것이 최후의 생명력으로 나타날 때 어쩌면 그것은 진실한 폭력 그 자체이다. 그러한 폭력은 단 한번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도 않은데 그것은 왜 그럴까? 팔레스타인의 테러는 아메리카나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공포 — 두려움의 상상력으로 발전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데서, 비폭력의 심리적 특성이 오히려 비폭력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상상력은 자꾸자꾸 공포심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테러 전쟁은 자꾸자꾸 테러를 낳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투쟁으로 테러를 저지하는 것으로 지금이야말로 ‘비전’은 비폭력 직접 행동의 초점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같이 (그렇지만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 까 무책임한 추측이 되겠지만) 청중중의 한 사람으로 강연 중에 빈정대는 소리를 지르거나 야유하는 전단을 뿌리는 따위 (이것만 해도 용기와 다소의 각오가 필요하지만) 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폭력에서 대결을 요구하는 도발도, 폭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폭력을 봉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약한 자의 비폭력 — 폭(暴)이 아닌 (非) 힘(力)으로 나온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폭력도 폭력과 똑같은 생명력의 발현이며 특히 약한 놈에게는 폭력에 대응하는 의미를 지닌 힘이다 (아울러서 말하면 약한 놈끼리의 폭력 사건은 아이들 싸움에서 볼 수 있는 의투(擬鬪)와 같은 결과로 끝나기 일쑤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끝나는 충동적 착란 혹은 생각하고 생각한 집념 끝에 결행하는 매복이나 야습, 또는 죽음을 각오한 테러이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게릴라 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99% 결정되어 있다).

조직과 그 내부 공격성

앞에서 ‘강하다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라고, 누구나 아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정리는 곧 상대측의 구체적인 대응 — 다시 말해서 인원과 물량의 조직화에 의해서 지극히 간단하게 전복된다. 그러니까 폭력은 조직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조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거의 무력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야말로 현대 폭력론의 핵심이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면 전형처럼 떠오르는 정치당파, 분파주의(섹트) 의예를 들지 않아도 우선 무엇보다도 통일과 단결이 중시된다. 물론 그것은 규약, 당칙, 통제가 성문화되고 전체의 합의와 승인으로 성립된다. 결코 강제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대 중인 조직조차도 파벌이 생기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왜인가. 더구나 운동이 매너리즘화(化)로 정체되어 꼼짝도 못하게 되면, 금방 노선 문제로 옥신각신하게 되고 그것이 안으로의 단속 — 사문(査問), 규탄, 나아가서 골육상쟁하는 내부 투쟁이나 분파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왜인가 — 요컨대, 어떠한 조직이라도 그것이 통일과 단결을 지향하는 한 언제든 내부 투쟁의 가능성을 내재하게 된다 (이제까지 쓰여진 사회 운동사가 거의 모든 운동의 분열 항쟁사에 불과하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통일과 단결이 조직의 내부 공격성에 의거하는 특성임을 밝혀둔다).

부록 1. 지극히사적 ☒ 탈선적으로

입장과관계

에당초“로프트플러스원습격을용서하지않는다……”라는이름에서 뭔가내부투쟁같은싸움판이라고알려진다. 어느쪽이어떻게되든나와는 그다지관계가없는남의일이다. 시민사회의일상적변두리에서일어난, 말하자면, 당사자들간의컵속의폭풍이지. 그런데그게또‘호기심에서라지만어째서당신이공동서명인이됐냐’고물어보면, 첫째로, 이‘성명’에 찬성해달라고한게다른사람도아닌가시마(鹿島) 군이었기때문에, 둘째로, 사건의전후사정이나시비가어떻든간에이경우대다수의‘억울한약한자’를두고볼수없어서’라는취지에는찬성하니까. 셋째로로프트플러스원이라는재미있는술집의영업이이런일로재미없게되는건재미없으니 까 — 결국이렇게‘남의일에참견’하면, ‘관계’라는것이이런데서시작해서깊은수렁에빠지게되는것이다.

약한자의폭력과비폭력

그러면여기서우선‘싸움은결과적으로힘센놈이이긴다’, 그리고‘승리를결정하는강함은상대보다물리적폭력이월등하다는것’임을까놓고말해둔다. 그래서사또오(佐藤) 군에대해서말하면, 가령그것이일대(對)일의개인적싸움으로서‘폭력사건’이라면어느쪽이이기든간에나와는본래무관하니까내버려두면된다. 그러나그게아무래도모른척할수없게되는것은, 이를테면사또오군개인이한일에대한반응이전기파(戰旗派)¹또는어떤뜻을지닌사람들과의‘일대(一對) 조직(또는다수)’이라는형태의다음단계로나타났기때문이다. 그것은폭력의제1차질적전환이다. 말을바꾸면‘상대방이강하다’든가‘잘못하다간진다’고생각할경우, 보통약한놈은맞서싸움을걸어서는안된다. 감히말하면결국사또오군

¹ 일본의신좌익계파의하나.

VIII.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생산노동、창조、유희

흔히직접행동이라고하면폭력에호소하는실력행사를떠올리고때로는폭력의동의어로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직접행동과폭력은아무런관계가없다. 사건을뒤져보면‘직접’이란“사이에아무것도끼우지않고접하는것, 다른것을통하지않고곧바로”라고되어있다.

우리들에게직접행동이란다른것을통하지않고, 자신의힘으로, 자기가필요한것을요구하는행동이다. 좀더얘기하면우리들이일상에서필요로하는것을간접적으로가아니라, 곧바로손에넣기위해서취하는행동이다. 그래서, 특히폭력적직접행동이라고하지않는한그것은폭력 이외의 모든방법이라는데서비폭력의직접행동이다.

더간단하게말하면우리들이일상생활에서필요로하는물건이라고할때의‘물건’이란, 예를들면식품으로대표되는생활물자일것이다. 그것을손에넣는다는것은그것을생산하기위한다구까지포함해서, 이경우헛갈릴것도없이, 물건을만드는일 — 생산이고, 그행동이란노동이다. 다시말해서직접행동의본질은우선첫째로물건을만들고그것을위해서노동하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생산과노동이야말로인류의역사를통해서인민만이짚어지고이룩해온, 인민만이할수있는인민최대의힘이다. 폭력 이외의힘이다. 비폭력직접행동을단순한항의행동을위한전술이나마음가짐처럼생각할때가 많다. 그러나비폭력직접행동이란, 그것은말할것도없이, 비폭력상황의일상이있어야만가능한생산과노동이다. 사람들이가정을꾸리고, 삶에필요한물건을생산하는가운데, 그러한힘은명료하게나타나서우리들의일상생활을이룬다. 당연하고별것도아닌발현그자체인것이다.

둘째로그것은생산과노동의결과를누리는것이고, 셋째로일상생활을즐기는창조활동으로서이른바노래, 춤, 축제등으로확대되는놀이이다. 직접행동이란주어진것을누리는오락만이아니라인민스스로가만드는창조행위이기때문이다.

자치와관리

우리들의생활은분명히비폭력적일상에기반을두고있다. 생산과노동, 기타는우리들의평온무사한사회생활의지속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그것은본래생산과노동을위협하는것, 이를테면전쟁등의폭력과근원적으로대립하는것이다. 폭력은물리적·형상적·적극적·능동적·물량적·순발적이어서금방인식할수있다. 그과정도, 결과도잘보인다. 그러나비폭력은눈에잘보이지않는다. 추상적·정신적·심리적·지속적·수동적·소극적그리고일상적이다. 그러니까아무일도없는상황일뿐, 의식하지않는한있는지없는지알수없다. 그래서“이게비폭력이다”하는것을누구도알아차리지못한다.

그러한비폭력은이미말한바와같이무엇보다도직접행동과결부될때비로소가시화되고우리들앞에힘으로나타나는것이다. 아무일도없는것으로있는비폭력은우리들의생명력의근원이며우리들의삶그자체의기반이되는힘이다.

그리고이를통해갖가지활동을만들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더명확하게말하면우리와의웃동아리들의교류관계혹은자치회나동네모임과같은것을포함한자치관리또는사회생활이라할수있겠다. 그런데서우리들은유사이래현대까지그자신이만들어온힘을자각하지못하고오히려권력의지배를떠받침으로써이러저러한우여곡절을겪어왔다고할수밖에없다.

비폭력이생산노동일때그것이자치관리와결부된다는것은당연하다. 예를들면, 농민이법씨를심고익으면베다. 그것은본래는내년을위해서씨를남기고식량으로저장하고기타필요한물건과교환하기위한것이였다. 그러한일을계획적으로종합해서스스로또는타자와더불어관리하고운영하는것이자치관리인것이다.

비폭력사회란, 단순히폭력이횡행하지않을뿐아니라, 자치관리사회로서비폭력상황을스스로의힘으로구현하는사회다. 그렇다면생산노동이자치관리와결부되지않을때그것은임금노동, 노예노동이아닐수없다. 비록그것이생산을한다해도의사적(擬似的) 생산행위라고할수밖에없다. 그리고바로그것이국가가지배하는의사비폭력체제의현실인것이다.

간디의소금행진

여기서비폭력직접행동을더구체적으로생각하기위해서간디가실행한소금행진을예로들어생각해보겠다. 그것은영국이인도농민의제염을

헤아려보면수십가지도더되는 — 이러한문제를하나하나흠어진채밀바닥에서일반화하는것이비폭력직접행동에다름아니라는것이다.

그리고각각의개별과제를과제로삼아서움직이지않을수없는잡민의잡민성을만들어내는것, 그것이바로비폭력직접행동이다. 다시말하면그것은무엇보다도조직으로써가아닌, 조직운동이아닌것을특징으로하는 — 아나키즘에서말하는자유연합이다. 이를테면각각이취미동호적친목에서시작하는‘관계’, 그리고그것의연계의연계로언제든지헤어질수있는비폭력직접행동의자의성이야말로오히려연결된네트워크의미라고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한마디만더. 한사람의무리(群)로, 그러한개인의이합집산의토대위에있는비폭력직접행동을우리들이극히당연한일상생활속에있는것으로새삼자각하고다시파악하면, 그러한시야에서우리들의일상은틀림없이크게변할것이다. 우리들이변하는그때, 마침내의사비폭력체제는흔들리기시작했다고말할수있지않은가.

나그것의모양이나내용, 과제의크고작음, 대상의구별등, 실로천차만별이다. 관계의설정도임의이고자의적이라고까지할수있다.

그와그녀는때로자기의생산점과인연에관계없이시민운동에참가한다. 그러나자기의생활점 = 시민생활에서는서로연결되며타자와의최저한의필요관계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것은각자가의식적으로생활점을시민사회를향해서열어나가는행위라기보다도오히려생산점에서벗어나서익명화된개인으로서시민사회에섞여들어가게되는것이라고하는게올다.

그러나우리들의생활점으로서의시민사회도시대의커다란조류와변화에, 당연하지만, 심하게흔들린다. 때때로직면하는현실적인정치과제에비추어자기의내부로부터도변화와변혁을하지않을수없게된다. 그리고그와그녀는어쩔수없이무관계의관계로서현실속에서자치관리의식을환기시키는모순적존재가되지않을수없게된다. 변화하는시민사회는옛날의시민노동자적체질을더한층잡민화(雜民化) 할것이다.

그것은과거의조직이나당파, 이데올로기나정치등과무관한이른바아나키로취미나기호에따르는개인적이고어느의미에서는무책임하고, 사정이허락하면가벼운마음으로“와”하고모여서움직이고끝나면각기산산이흩어지는무조직적(無組織的) 모임이다. 정체가조금도명확하지않고이합집산이순탄하지않은모임이라고해도좋다.

그것은지금까지않은젊은이들중에자치관리의경향 — 이를테면생산점과의거리를스스로유지하면서기업사회일반과다른생활을지향하는잡업자들, 정규직거부지향의반실업자군이나프리아르바이터들또는자원봉사자들. 그이름이꽤알려진, ‘아끼노아라시(秋の風, 천황제반대모임)’나‘다메령(だめ連)’등한때는끓어지고또어느때는부활하면서거품처럼생겼다가는어느사이에꺼지는소수집단의파생, 시민도인민도노동자도그래서자기이외의아무것도아닌‘잡민’의식의출현인데안토니오네그리가이름붙인 Multitude (다중) 라고나할수있는것이다. 좀더얘기하면세계적으로는반세계화 ☒ 반자본주의의이름으로이를테면세계정상회의에각국에서모여드는수만명의잡다하고카오스적인그숫자의의미하는것들이다.

그리고이러한움직임에공통된근저에커다란흐름으로서, 나는, 지금‘비폭력직접행동’이다양한형태로구체적으로움직이고있다고주장하겠

다. 앞에서말한소수노동자는좀더시민운동과의접근이요구되지만라르자크나사파티스타의구체적시사는틀림없이귀중한경험이될것이다. 더군다나시민노동자라기보다오히려잡민으로, ‘잡민화’됨으로써더욱개별과제에대치하게되는여러운동, — 차별이나국가(國歌), 국기(國旗), 야스쿠니나유사입법, 장애자문제, 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침공등

금지하고소금을독점판매함으로써인민을많이수탈하려는소금전매법에서시작되었다. 간디는각지에서모여든농민을이끌고수십일간의데모행진을조직했지만다짜고짜로금지당하고탄압과투옥으로이어졌다. 그런데도행진은거리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이가세해서해안을향해나아갔다. 그곳에서해수를퍼다가스스로의손으로소금을만들었다는것은, 필요한것을만들었다는상징적의미를갖는것이였다. 이것은법을어겨서까지행진을이어갔고, 소금전매법을무시하면서까지필요한소금을손수만들으로써직접적으로국가의법률과대립하는것이였다.

직접행동이란이처럼, 첫째로, 우리들스스로의손으로우리가필요한것을손에넣는것이다. 소금이필요한농민이당사자가되어직접소금을요구하기때문에시위를한당연성과, 무한대로많은해수에서소금을만드는작업을한정당성은, 그누구도침해하지않고피해를주지않는다는데서권력자의무법을부각시키고그들의무법성에직접공격을가하는것이다. 그것은스스로를위해서생산하는행위를통해서권력자와인민의관계, 생산자와생산에기생해서수탈하고낭비하는자들의자세까지도부각시킨다. 이렇게직접행동은생산노동그자체라는점에서생산관계의진실을명백하게한다.

둘째로, 우리들이자기의개인책임에서스스로행위한다는것이다. 그가소금행진에참가하는것은자기의필요때문에결정한, 의지에의한것이다. 그것은데모나전매법위반에대한권력의탄압을자신의몸으로받는것이기도하다. 결과를누구에게도전가할수없는장소에자진해서자신을둔다는것이다. 그자신이불잡혀투옥될지도모른다는것을예상하고참가한다. 이렇게직접행동은개인책임을명백하게한, 한사람한사람의주체에의해이루어진다. 말하자면이것은자치관리가기도하다.

셋째로, 그것은합법·비합법을초월한생산행위이다. 행진에참가해서항의를하는것, 나아가서그의필요성에따라서소금을만드는것은, 정당성에서법적시비를초월한다. 지배자는반드시위법을문제삼지만, 그러한법은그의정당행위를벌함으로써스스로의불법을드러내지않을수없다. 합법은권력자의명분일뿐결코정의의보증이아니다. 직접행동에대해서법률이강권을동원하면할수록그것은법률그자체의부정의의를증명하고스스로무덤을파는일이된다. 합법·비합법은우리들에게전술적고려이상의것이아니다. 이렇게직접행동은권력의어떤규칙과도관련이없다.

넷째로, 그것은정치라고하는간접수단을일체부정하고배제한다. 길을따라바다로향해서걸어간다는것, 해수를퍼다가소금을만드는것은그들에게는가장빠르게, 확실하게자기의소망을달성하는길이다. 그것은자연스럽고, 직접적이고, 누구에게나당연한방법이다. 게다가인민이그것을직접만드는수밖에, 그누구도소금을만드는사람이없다는데서오직하나밖에없는올바른길이다. 그렇다면, 소금을얻기위해서여러가지방

법이있다해도그가해야하는일은정해져있다. 그일외에는모두길이멀고 불확실한데다가완전히소망을이룰수있을지아무도모른다. 가령, 정치에의존해서대모의규제를완화시켰다고하자. 그러나그것이그자신의행동에의하지않는한인민은정부와의대차대조표한쪽에빚을지게된다. 그뿐인가, 정치는그들과그들의생산물사이에개입해서경비를사용하고시간을허비하고구전을착취한다. 또그뿐인가, 그렇게해서그에게는언제나정치꾼을매개로하지않으면아무일도못하도록배후자가불는다. 우리들이자기의생산물을사용하는데그처럼귀찮은방법이필요할까. 이렇게직접행동은정치가쓸데없는게재물일뿐아니라착취의방법으로있다는것을명백하게한다.

다섯째로, 그것은인민의존재양식이그자체로생활과밀착된싸움이다. 그의행위는생활그자체로그의실력을보여주고그러한실력의행사야말로인민의유일한거절이라는것을자각하게한다. 소금행진을하는것은그것이나날의생활과같은의미를지녔기때문이다. 그것은살이고, 살기위해서그때그가할수있는최대의실력을그의육체 — 생활을가지고 — 로실행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인민에게직접행동이란타인에게물건을빼앗는것이아니라, 스스로물건을만드는것, 그렇기하기위해서방해를무시하는것이다. 이렇게직접행동은방해에대해서는실력행사로생활의의미를명백하게한다. 여섯째로, 그것은나날의생활 — 생산과관련해서자립적으로나날의생활을관리하는것이다. 우리들의일상은생산의장소와도구, 원료를자신의생활을위해서확보하고물건을생산하며나아가서올바르게분배하는일이다. 방해와협박, 검거와투옥에도불구하고소금행진이엄연하게계속된것은참가자개개인이자주적·자립적이며전체로서행진을자기의책임에서조정하고관리했기때문이다. 그것은사회생활의질서가사실은권력에의한통제적법규의결과가아니라본래부터인민이가지는자연스러운기능에있다는것을증명한다. 이렇게직접행동은인민의속성으로서의비폭력과결부되어그것이매우능동적인힘이라는것을명백히보여준다.

현재우리들이생각하고있는생산과노동은, 사실은자기의노동력을상품으로서자본에파는것에불과하다. 그렇게해서언은대금을중개해해서간접적으로밖에자기가필요로하는것을얻지못한다는데서우리들의생산노동은명백하게의사화되어있다. 바꿔말하면, 직접행동은본래의비폭력상황하에서만그러하고사이비비폭력체제하에서는그것과대응하는의사생산활동이외에아무것도아니다. 마찬가지로현재제내에서의비폭력은전체가의사화 ☒ 왜소화되어의사직접행동이나권력자신의폭력행동밖에있을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대단히중요한의미를갖는것이다.

이처럼모든것을체제내에서강탈당한상황하에서이루어지는우리들의싸움은정확하게말하면직접행동그자체로서가아니라우선비폭력직

이나지금이나마르크스가말한부정적존재로서의 — 극빈층, 룸펜프롤레타리아또는밀입국한외국인노동자들속에만존재한다. 따라서자기의일상을의식적으로비폭력직접행동의위치로밀고나가서생산점에서의의사생산노동을방기하는노동자는없다. 극히소수의노동자와개인이가맹한합동노동조등을제외하고거의모두가자본의톱니바퀴의하나로, 다시말해서사회생활의기점(基点)을임금노동에두고생산점을축으로일상을살고있다.

그러나그는노동자지만역시한편에서생활자적시민이므로하루에도몇번씩생산점을이탈해서노동자라는것을그만두는순간이있다. 예를들면, 일하다가자리를떠나서담배를피울때, 점심을먹으면서주간지를읽을때, 술집에서동아리들과맥주를마실때등. 그리고휴식, 소비, 생활의장으로서의공간, 즉거주의장과그것과연관된생활점으로돌아갔을때. 이렇게노동자는생산점과생활점을왔다갔다하는왕복을날마다되풀이하고있다. 그러나그의생활점은그만의장으로외부로부터거의폐쇄되어있기때문에일시적휴식의장에불과하다. 휴식이라기보다다시그저생산점으로되돌아가는것을전제로하는장이라는점에서그것은도착점조차도아니고생산점왕복의반환점일수밖에없다.

다시말해서그의생활은확실히생산점을축으로해서회전하고있는것이다. 생산점은그에게타자 — 정치사회환경과결부되는유일한통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렇기때문에자기소외적생산점에서, 자기회복으로서의생활점을, 만약에그가적극적으로의식했다하더라도그저생산점에의거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것은크든작든도시잡업노동자나프리아르바이트들에대해서도할수있는말이다.

그렇다면그의생산점으로부터의탈출은, 생산점과생활점의두곳으로찢겨져서왕복하고있는자기의, 생활점에서의자기발견이외에는있을수없다. 그것은시민노동자로서의의사생산노동을객체화함으로써노동자의의미를새로발견하는것이기도할것이다. 그러나물론그것만으로서시민노동자는자본의진지 — 생산점을내부에서허물거나탈취하는투쟁으로궤기할수는없다. 그리고여기서시민사회에서나온시민운동이나그롭이다양한모습으로서시민노동자앞에등장하게된다.

시민노동자에서잡민(雜民)으로

시민운동은본래우리들의생활점에기반을두고있다. 그기반은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서생기는감정적 ☒ 이해적, 공동성 ☒ 관계성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우리들이시민운동에접촉하는계기는사회생활중에자기의이해나생활감정의공동성의인지와관계의공감성에서생긴다. 그러

X. 한사람의무리 (群) 로

생산점、생활점과시민노동자

지금일반적으로시민그리고이와동일하게쓰이는노동자라는개념은, 국가와자본에생활의모든것을내주고있으면서때로중산계급의식하에서한결같이 (?) 노동하는도시또는그주변의근로자나샐러리맨그리고시간제근로자등주부일반에대한지칭일것이다.

여기서는일단‘시민노동자’라고부르기로한다. 시민노동자는생산점과생활점이라는두개의장을축으로나날이왔다갔다하면서일하는대다수의사람들이다. 그와그녀는날마다일터로출근하고무엇인가‘상품’을만들기위한생산공정에서일하고있다. 틀림없이그것은생산노동이고, 만들어낸‘상품’은그러한사람들의노동이있었기에있는것이다. 그런데도그것은결코비폭력적접행동의생산노동이아니다. 말할것도없이, 완성된‘상품’은생산에관련된노동자들의것이아니라처음부터자본의것이다. 만약에그것을필요한다면임금에서얼마의돈을꺼내서대금을지불할수밖에없다. 그는다만임금노동을하고있을뿐이다. 그러면서그에대해서조금도의심하지않는데서시민노동자는역지로서민생활의충족또는만족을얻는다.

그러한시민노동자의생활의장으로서시민사회는, 시민생활의일상에사적 (私的) 개별사항의현실성으로존재한다 (그것과대조해서정치사회는관념적 □ 공적 (公的) 보편사항의추상성으로서민생활과격리되어성립한다). 즉, 시민운동은정치국가와시민사회의분열이라는모순, 본질적으로생산력과유통관계의틈에서파생되는여러가지상극을개별적으로해소하려는데서거의체념하면서때때로분출되는것으로서있다. 이운동은시민개개인의공통이해또는문제의식에기초를두어당연히조건적이고부분적이고한계적이다. 실령운동이확대되고양양된다해도시한적, 국지적인것으로멈추고다른부분과결합되거나누적적발전이거의없으며쉽게반권력투쟁이되지않는다.

말을바꿔서, 이른바노동조합은산하의노동자를규합해서한결같이생산점을지킴으로써이제는조합원의조출한물질적욕구의충족을자본과국가가‘풍요롭다’고말하는데말겨버리고완전히관리기구속에있다. “잃을것은사슬뿐”이라는, 그자체로변혁의요인을내재한노동자는예전

접행동의회복과탈권의투쟁이다. 소금행진에서실행된채염은일상적인비폭력상황하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이아니다. 사실은상징적인것, 그것이다. 소금행진에들어있는매우첨예한정치투쟁은 — 우리들자신을위한, 생산노동을탈환하기위한더욱엄격하게말하면비폭력직접행동‘탈환’의투쟁이될것이다. 그것은자신을노동소외에서되찾아내서의사생산노동을자신을위한것으로만들기위한투쟁이다.

IX. 비폭력직접행동, 몇가지문제

소수파의노동운동

노동운동은단순히자기의노동을착취하는자본이나그를구성하는사회기구에대한투쟁만으로끝나지않는다. 자기의의사생산노동, 그러한의사를가져다주는의사상황에대한투쟁이다. 비폭력직접행동의탈환이다. 솔직히말해서, 될수있는한일하지않고별지않는주의다. 자기가하고싶고또한할수있는것만한다. 그렇게일하는방법을추구하고연구하고생각하는것을즐기고기쁨으로여긴다. 그렇기때문에투쟁이란노동운동에서의단순한임금상승이나조건개선투쟁을의미하지않는다. 이것은노동에서의창조적인투쟁이다. 그리고또이러한투쟁은종래의조합운동과다른도시의잡업(雜業) 노동자나프리אר바이터등‘미조직(未組職)’의유동적노동자에의한움직임 — 노동의거부와통하는것이다.

예를들면지금우리들이‘비전(非戰)’이라고할때그것은군수산업에서의노동이라하면즉시생산점의방기(放棄)를의미하지만그이전에우선위장태업, 업무불이행, 작업실수다발, 결국에직무거부등갖가지형태의경위가우선있고나서마지막으로부당해고에대한재판으로이어지는, 자기자신의처신과존재방식을만드는것이다. 결말에가서구조조정이나실업에도불구하고생산점을버리거나떠나지않고집요하게최후까지투쟁을계속하는어찌면자기파멸적으로보이는소수노동자들의존재야말로여기서말하는노동운동인것이다.

한편, 자본가들은의사비폭력체제하에서무엇보다도자본의존립기반의안정과유지를필요로한다. 그러한의사가허물어지는것은사회적인혼란과불안이일어난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소수파들의움직임은그자체가권력공격의의미를갖는다. 그러나당연하지만이러한소수파노조의투쟁도권력의탄압에봉착하지않을수없다. 예를들면, 생산점에서만든자치공간에권력이치고들어왔을때당연히그곳에는피아간의폭력적공방의형태가출현한다. 그것은권력이쓰고있는의사비폭력의가면을벗겨그들의정체를더욱명백하게해서일견폭력적으로보이는투쟁이나타나게될것이다. 그러나그것은직접행동의부활 — 생산노동탈환에서본질적으로비폭력을지향하는것이며폭력투쟁과동질의것은아니다. 의사

일본을방문한프랑스의세계화반대활동가조제보베씨(49 세) 가인터뷰에응하고유전자조작을위한벼를뽑아버린사건에서프랑스대법원의판결이 5 일언도가예견되는것에대해“내가수감되더라도투쟁은형무소밖에서계속될것이다”라고말했다. 또미국자본계열의햄버거체인맥도날드의신축건물을해체한행위로수개월의금고형을복역한보베씨는대법원판결에서실형이확정되면다른사건과합쳐서 14 개월수감된다. 보베씨는“합법성보다운동의정당성이중요하다”라고말했다.

여기서비폭력직접행동이그대로그의투쟁이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일건과격하게보이는행위는그에게는전혀아무렇지도않은당연한행위가틀림없다. 그리고비폭력직접행동이란보베씨뿐만아니라본래부터우리들에게도그런것이다 (이러한비폭력직접행동은그시점을조금만바꾸면여러가지실례를얼마든지들수있다. 이를테면원전반대운동에서시부루크에서전원이훈련을마치고 1700 명이일제히부지내에연좌행동을전개하여체포거부작전에나서는등, 우리는운동의가능성이무한함을간파하고권력을안도하게하고있다고도하겠다).

투쟁이다. 그런데산리즈까는자기들자신의투쟁을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그렇기는커녕더욱무장투쟁으로돌진하려는방향에사로잡혀오히려폭력투쟁으로비난받고있다. 폭력이아닌데그게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자각이없다. 확신도없다. 그것이최후의결정타를날리지못하게하고있다. 비폭력직접행동은당연한일상의보통행동이지만그것을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자각하는것으로힘이된다. 운동이라는면에서말하면라르자크에서는개별적이며각자의과제에대해서각자의입장에입각한공동성에서시작된다. 청년, 부인, 노동자,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에콜로지스트, 망치와낫⁴, 유기농업자등이당파, 정당, 조직체에구애받지않는다는것 — 개인의입장으로그것이우선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공동인식에서성립된다”

그리고 2 년후하스트가서거했다는풍문을들은후완전히잊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보베는나에게처음접하는전혀미지의사람으로, 처음에는그저라르자크라는직함을보고깜짝놀랐을뿐이다. 2002 년 3 월 29 일신문은이스라엘군이팔레스타인에침입하여공격을시작했다고전했다. 그리고, 수일후에는의장청사까지포격으로파괴하는바람에아라파트가집무하는의장실까지포위하고수도, 전기까지끊고식량공세를피하는등무법행위를저질렀다. 이에대해서 — 비폭력을표방하는수십명의국제시민파견단이 — 이스라엘군의작전의틈을타고식량등을가지고의장청사에돌입하고그대로그의장실에있으면서‘인간방패’로의장과촉근들을포격으로부터지키고있다는기사가나왔다. 그런데그들뜻있는이들속에마침라르자크의보베라는이름을발견한것이다. 그렇다면 30 여년간, 아직도라르자크는건재하고비폭력직접행동을계속하고있었던것이다! 나는우선그것에주목했던것이다.

‘인간방패’의행동과전술에대해서는그후에간행된 『팔레스타인국제시민파견단의장부방위전일기 (パレスチナ國際市民派遣団議長府防衛戦日記)』 (太田出版) 에자세하게실렸다. 그책의저자대표로조제보베의이름도나와있는데, 그서문을조금인용하면, “이스라엘시민이있는한가운데서작렬하는인간폭탄은무서운행위이다. 그러나수일간이라도팔레스타인을방문한사람이라면누구나그곳에서몇년간이나절망이재생산되고있고폭력이대규모로행사되고있는것을반드시지적할것이다. 테러를결코허용하지않는것이아니라무엇보다도먼저어떤테러가다른테러에서나온다는것을지적하지않으면안된다”고해서그활동의일단을보이는것같았다.

그런데다시 11 월 11 일아사히신문조간에돌연「재수감에서도투쟁, 유전자조작에항의 — 프랑스활동가보베씨」라는타이틀의기사가실려있었던것이다.

비폭력체제의붕괴과정에대응하는인민의반폭력 (反暴力), 다시말하자면생명력으로서의힘이한정적으로나타난것이다.

생명력과사회폭력의가장다른점은, 후자가그의폭력조직기구를자기긍정적으로더욱더심화 ☒ 확대할수밖에없는데반해서전자의폭력은한정적이고조건적이고상황적이며항상비폭력으로수렴되는반폭력이라는것이다.

되풀이해서말하면, 국가가행사하는폭력과인민의반폭력이대항할때일견똑같아보일지도모른다. 그러나직접행동의시점에서볼때그것은전혀다른, 이질적이라는것을알게될것이다. 어찌보면헛갈리는것을구별하는결정적인기준은그행위가근본적으로어떻게생산노동과관련되었는지, 또생산노동의확보와결부되어있는지이다.

앞서폭력은, 투쟁이일시적으로상황을타개해도, 마침내사람들의버림을받는다고말했다. 직접행동은한정적 ☒ 조건적 ☒ 상황적으로나타난다 — 는것은투쟁이정적되지않고그때그때에따라서다양한게릴라의형태를취한다는것도시사하고있다. 그리고게릴라는폭력투쟁의것만은아니라는것도확실하다. 즉, 반폭력적대응은그것만으로끝나지않는것가지방법으로서창조적인투쟁을창출하는것이다. 투쟁이란종래의비폭력이나폭력의개념으로부터도완전히자유로운데서일어날것이다. 직접행동이생산노동뿐만아니라창조활동이라는것은이경우에특히의미를갖는다. 그것은기존의개념을깎아내려서새로운투쟁 — 비폭력직접행동으로나타나지않으면안된다. 그래야만투쟁이대응의상대성을넘어서서우리들의힘이되는것이다.

거기서는이제폭력의강약에의해서승패를결정하지않는다. 기존의비폭력개념은흔히기성의폭력개념과밀착해서오히려새로운투쟁형태의발상을방해했다. 강령도규약도없고대표도두지않는비조직적조직의일반화, 개별적이고다양다중한각각의문제를가지고부분끼리붙었다떨어졌다자유자재로움직임으로연결되는모임 — 그러한잡민성의구경꾼적방종이나무뢰한적성격이야말로힘으로끌어들이는것을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공동체등의의미

앞에서는이를테면노동조합‘연합’등이상징하는, 작금의노동자와노동운동일반의거의절망적인상황을뇌리에떠올리면서일부사람들에게있는가능성으로썼다. 그러한의미에서현재더욱절망적일지도모를‘공동체’의아주작은가능성과불가능성에대해서써두고싶다.

예를들어, 70 년대경조금문제가된, 소규모지만각지에파생했던, 지금은겨우두세개만남은‘공동체운동’의현재는어떠한가. 그때를돌이켜

⁴ 사회주의세력.

보면, 당시의이러저러한공동체건설의시도는일상생활의차원에서스스로비폭력공간을창출하려는것이였다. 무의식하에서라도비폭력직접행동의연속적일상화이고일상생활의비폭력직접행동화를지향하는것이였다.

- 1) 그것은무엇보다도체제내의상품화된노동에대해서비금전적인노동이라는점,
- 2) 공동체의창설과운영이자치관리의실천이라는점,
- 3) 게다가생활의공동성을통해서개인의일상영위를스스로가엄격하게따지는자기관리의장이라는점,
- 4) 생산이노동의결과뿐만아니라스스로가찾아간자신의손에의한창조의기쁨이고누림이라는점에서그러했다.

그러나또그것이무엇보다도비폭력직접행동본래의의미를영위하는것인데도공동

체측에서누구도말하는이가없고그것을알지못했다는점이다. 그리고그이유의대부분은순전히공동체그자체안에있었다. 즉,

- 1) 공동체는농경등공동노동을통해서내실을만들어보자는것이다. 그것을위해서처음부터일상생활차원의문제가집중돼서미시적인소(小) 상황문제의처리에쫓겨서비폭력직접행동적시점이방기되어버렸던것.

- 2) 예를들어공동체의발기가무상노동과같은자본과의공존을거부한것이였다해도, 그것이개인생활의공동체로의탈출이라는사회와의단절로완결돼버린다는것.

- 3) 공동체를외부의정치적상황에서지켜내고유지하기위해서외부와접촉창구를될수있는한한정시켜버리고탈사회적폐쇄성으로전환시켜버린것.

여기서이항목에관련해서반기지투쟁등에대해서약간덧붙여두겠다. 예전의기지투쟁이라고하면지금도오끼나와, 산리즈까¹, 칸사이공항², 히주우다이³ 등과각현장에서의투쟁이떠오른다. 이러한기지투쟁은권력의토지몰수나토지수용에대해서토지를내주지않으면서생활을지키는데서시작했다. ‘연좌’가아니라이른바‘입주’같은것이다. 그것은공간적장(場) 투쟁이고동시에좀더시간(일상생활) 적인지속투쟁이며, 말하자면그두개의분리여부가비폭력직접행동의초점이라고할수있다. 그것이가장잘나타나는것은, 이를테면기지내의경작이다(구체적으로말하면현재광음머리위수십미터를비행하는매수예정토지에있는산리즈까의순환농장과같은것인데, 그것은존재자체가비폭력직접

행동이라고하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이그처럼우리들의일상에큰의미를갖고있는데도현실적으로아무런문제가되지않고운동이라는것의내부에서무시되고있는것은왜인가.

그것은지금까지이러저러한형태로이미나타나고있는비폭력직접행동을총체로서파악하고현재의시점에맞춰서다시미래를전망하는비폭력직접행동론이제시되지않았기때문이야닌가. 그것을자각적으로만들어내는노력이전혀충분하지않은것이다.

라르자크공동체의보배, 기타

여기까지 썼을때라르자크공동체의보배가일본에왔다는것을알았다. 라르자크는프랑스중앙부의협곡과석회암의침식이이어진고원지대에있으며로크포르치즈나목공예품을특산품으로하는농촌공동체다. 1970년대초부터비폭력직접행동을실시하고프랑스육군의훈련지확장반대운동을전국으로확산시킨것으로알려졌다.

그들의방법도특이한데국민중남자에게필수인군무수첩의일제파기운동에서시작하여파리에펠담밀의양떼데모, 또는 2000 두의양떼로현의회봉쇄작전, 립프시계노동자와의공동투쟁대파업, 트랙터 70 대에 의한공장내행진, 용수로를 없애려고한도로공사에대한농돌격(연대 〓 합작) 수로건설, 공병대사무소에쳐들어가서측량서류와불용도면의 파기(22 명의행동지원자투옥), 전국에확대된라르자크위원회(GFA)에의한모금에서확장에정지의 4 분의 1, 1,515 헥타의입수, 신규입촌자와지원자에대한농장개방, 500 두를수용하는염소우리완성, 이주자의군용지점령경작, 신규입촌자를위한학교만들기, 낙하산강하부대를 포위하기위한폴베기작전과이동중인군대차를 운전해서멀리떨어진곳으로추방하기, 수확제에전국에서모인 10 만 3000 명등등. 분방하면서도언제나표를찌르는파격적인비폭력직접행동의전술로이름이알려졌다. 당시촌민은평상시 500 명에서 1000 명이라는말도들었다(각집마다자립해서, 그때그때출입이있다).

그런데여기서당시라는것은벌써지금부터 20 년도더된 1980 년경의일인데그것은라르자크공동체의창시자란자텔파스트가산리즈까의공동투쟁을위해서일본에왔고오오사까의우리아지트살루톤에도묵어간일이있었기때문이다. 파스트는그때이미 80 세, 젊었을때인도에서직접간디에게오래사사하고귀국후에라르자크에서공동체를시작했다고한다. 산리즈까에대한파스트의감상은지금까지나의뇌리에깊은인상으로남아있다.

산리즈까는라르자크의우리들과완전히같은투쟁을하고있다. 라르자크에서는그것을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부른다. 그렇게의식하고하는

¹ 토오쿄오나리타공항건설반대투쟁을지칭.

² 오오사까인공섬공항.

³ 큐우슈우의군사격훈련장.